

# Sulwhasoo

VOL.86 JULY/AUGUST 2018

Sulwhasoo

Sulwhasoo

JULY/AUGUST 2018





우븐 램프 / 양정모  
한지 스틸 LED 램프 / 280 x 270mm /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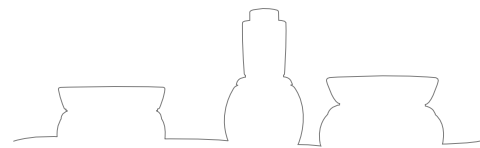
눈에 띄게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도록 눈길이 머문다. 담백하고 고요한 모습에 이내 마음을 뺏긴다. 편안하고 정감 가는 디자인을 추구하는 양정모 작가의 '우븐 램프'가 함께하는 공간은 오붓한 가족들의 식탁 위를 따뜻하게 밝히고, 누군가의 책 읽는 그윽한 시간을 비추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때론 홀로 마음을 가지런히 할 때 빛이 되어주는, 오래 봐도 질리지 않고 보면 볼수록 근사한 조명이다. 평온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이유는 한지 덕분이다. 한지의 질감이 잘 짜인 원단과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한 디자인으로 불이 꺼진 상태에서 보이는 파란색 수평 라인과 불이 켜졌을 때 숨겨져 있던 수직 라인이 교차하면서 패턴을 만든다. 그 패턴을 투과한 빛은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퍼진다. 전통 한지에 현대의 오프셋 인쇄 기술로 패턴을 새기고 미니멀하게 디자인한 '우븐 램프'는 우리의 일상에서 쓰임새가 잊히고 있는 한지를 곁에 둘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한지를 만난 빛은 우리를 안온하게 감싸준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

It is not that vibrant and colorful, but it entices your eyes for a long time. Its graceful and silent appearance mesmerizes your heart. Created by artist Jeong Mo Yang who strives to provide comfortable and friendly designs, 'Woven Lamp' brightens the tables of happy families or lights up for someone reading a book. It is a beautiful lighting fixture perfect for those moments when you want to calm your mind. It will not go out of style with its timeless design. The Korean paper gives it a peaceful and smooth look. The design was inspired by the fact that the texture of Korean paper is similar to well-woven fabric. The blue horizontal lines that show when the light is off and the vertical lines that are hidden when the light is on intersect to create a pattern, allowing the light to penetrate the pattern and spread more abundantly and brilliantly. 'Woven Lamp,' a minimal design with traditional Korean paper patterned using modern offset printing technology, is a great way to keep the spirit of Korean paper alive, since it is no longer used much these days. With the Korean paper, the light warmly embraces all of us.

설화수 헤리티지에 빛나는 인삼의 강인한 에너지  
자음생 라인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Line*



강화된 인삼 결정체가 피부의 힘을 키워 탄탄하게 깨어나는 피부 활력을  
선사합니다. 자음생 라인으로 진정한 안티에이징이 실현됩니다.

The new and improved ginseng essence fortifies  
the skin's natural regenerating and defense capacities to replenish vitality.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Line realizes true anti-aging effects.



# Sulwhasoo

JULY/AUGUST 2018

##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홀리스틱 뷰티의 정수, 설화수

설화수는 수천 년 아시아의 지혜가 담긴 전설적인 귀한 원료를 현대 피부과학으로 재창조하여 피부 안팎을 총체적으로 케어하는 궁극의 피부 솔루션을 제공하고 내면과 외면의 균형을 찾아주는 홀리스틱 뷰티를 선사한다. 자연의 이치로부터 지혜를 얻고, 자연의 진귀한 원료로 아름다움을 가꾸어 자연을 닮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동시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 아니라 내면까지 아름답게 가꾸어 내면과 외면의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브랜드, 설화수. 3000가지 원료에서 찾아낸 피부 균형을 다스려주는 설화수 고유의 원료인 '자음단™'과 설화수만의 독보적인 효능을 가능케 한 한국의 우수한 효능 원료 '인삼', 그리고 첨단 피부과학 '바이오컨버전 기술'을 통해 설화수는 한국을 넘어 세계에 홀리스틱 뷰티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설화수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미국, 캐나다, 프랑스까지 전 세계 12개국에 진출, 아시아안 뷰티 크리에이터로 자리 잡고 있다.

---

Sulwhasoo offers the ultimate skin solution that treats the skin from within by incorporating modern skin science into legendary ingredients infused with timeless Asian wisdom and presents holistic beauty to restore balance between body and mind. The Sulwhasoo brand gains wisdom from the laws of nature, pursues beauty reminiscent of nature with precious natural ingredients and delivers beauty of harmony and balance between body and mind by creating beauty from the inside out. Sulwhasoo globally promotes the value of holistic beauty with the JAUM Balancing Complex™, an optimal blend of five ingredients, carefully selected from more than 3,000 medicinal herbs, Korean ginseng, the legendary ingredient that makes Sulwhasoo's unique formulas even more special, and Sulwhasoo's cutting-edge Bio-conversion Technology™. As of 2018, Sulwhasoo has established itself as an Asian Beauty Creator, operating in 12 countries around the world such as South Korea, China, Singapore, Hong Kong, Thailand, Indonesia, Malaysia, Taiwan, Vietnam, the US, Canada and France.

# Sulwhasoo

VOL.86 JULY/AUGUST 2018



## 펼 치 다

〈Sulwhasoo〉는 설화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주)아모레퍼시픽에서 연 6회 발행하는  
고품격 VIP 매거진입니다.

- 08  
**설화지혜**  
빛나는 태양만큼 환한 여름 피부를 위해
- 12  
**피부 섬기기**  
깨끗하게 지우는 것이 스킨케어의 첫 단계
- 16  
**新 장인을 만나다**  
매력보다 우선하는 디자인은 없다
- 22  
**공간미감**  
자연과 오래된 것, 새로움의 기막힌 조화
- 28  
**건너다**  
빛의 도시, 쿠알라룸푸르를 밝히는 설화수

발행일: 2018년 7월 2일(통권 제86호)  
발행인: 안세홍 편집인: 이우동  
발행처: (주)아모레퍼시픽 기획 및 제작: 설화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팀  
제품 문의: 고객센터(080-023-5454, 수신자 요금 부담)  
편집, 디자인: 가이 미디어 02)317-4921 편집: 박훈성, 민소연 디자인: 조윤희  
사진: GURU visual 02)747-6118 시스템 출력: 덕일 인쇄 (주)태산인쇄 02)853-6574

〈Sulwhasoo〉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Sulwhasoo〉는 [www.sulwhasoo.com](http://www.sulwhasoo.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누 리 다

- 36  
**설화인**  
유난하진 않지만 유난히 빛나는  
음악 하는 김윤아
- 44  
**어우러지다**  
유유자적, 여름 풍류가 담긴 집
- 50  
**설화풍경**  
바람의 말이 머무는 풍경
- 54  
**설화보감**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한 그릇
- 60  
**아름다운 기행**  
낯선 도심에서 보내는 이 아름다운 여름
- 66  
**설화수를 말하다**  
마르지 않는 촉촉함이 깊이 스미다
- 72  
**설화공간**  
오감을 일깨우는 향기,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티 클래스
- 74  
**설화수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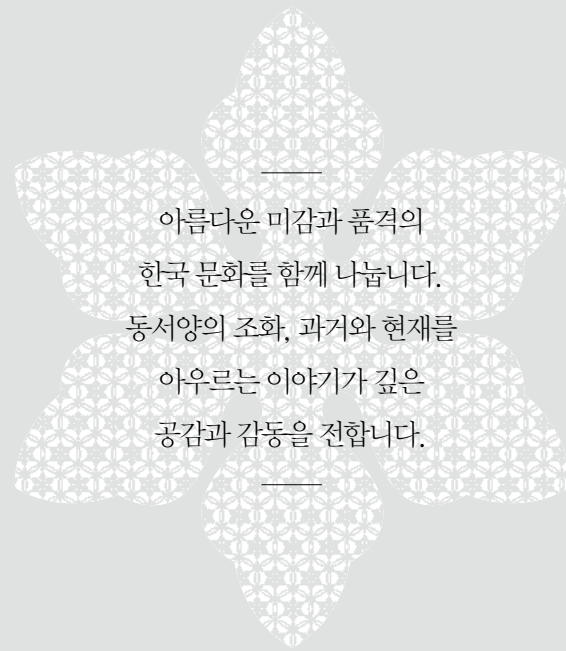


## 익 히 다

- 78  
**배움의 기쁨**  
다름을 모아 이룬 하나의 아름다움
- 82  
**한국의 멋**  
마음을 씻는 상서로운 향기
- 84  
**설화애장**  
웃칠 거울 위 보석 그림자
- 86  
**읽다**  
소금의 세 가지 속살
- 90  
**집 안 단장**  
싱그러운 자연이 가득한 집
- 92  
**몸 단장**  
여름의 낭만을 입는다



- 94  
**문화 즐기기**
- 96  
**프로덕트 맵**
- 98  
**독자 선물**



# 펼 치 다



# 빛나는 태양만큼 환한 여름 피부를 위해 To brighten the skin up like the brilliant sun in the summer

여름이 깊어지는 동안 태양의 기운은 매일 더해지고 그림자 역시 그만큼 진해진다.

질은 그늘은 땀을 시원하게 식혀주지만, 얼굴에 느닷없이 생겨버린 그늘은 반갑지 않은 여름의 불청객.

더운 날씨는 몸도 마음도, 피부까지 지치게 한다. 생생하게 기운을 차릴 방법이 없을까?

글 민소연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부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여름은 그야말로 보양의 계절이다. 싱그러운 제철 재료와 건강에 이로운 갖가지 보양 음식이 더위에 지친 우리 몸을 보한다. 신체가 가장 허해지는 계절이면서 몸을 다듬고 챙길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기도 한 것이다.

기운이 쉽게 떨어지는 여름날, 피부는 치명적인 위험에 처한다. 강한 자외선은 노화를 일으키고 후끈거리는 열은 모공을 늘어나게 하니 말이다. 또한 세계 부는 에어컨 바람은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체온을 급작스럽게 떨어뜨려 체내 자연스러운 열의 순환을 막고 균형을 깨뜨린다. <동의보감>을 비롯한 여러 옛 의서에는 열과 피부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다고 전하고 있다. 열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데 꼭 필요한 수분을 빼앗는다. 그래서 체온이 오르면 피부가 달아오르고 건조해지기 마련이다. 열을 배출시켜야 하기 때문에 모공도 넓어져 피부가 늘어나기 쉽다.

또한 열로 생겨난 어혈과 혈액 찌꺼기는 혈액순환을 방해해 피부에 돌아갈 영양이 부족해지고 재생력이 떨어지고 만다.

Summer is the season of supplementation. Fresh ingredients in season and different kinds of healthy food could relieve tiredness caused by sweltering weather. Summer is the time you become weak in health, however, it is also the best time to refine and strengthen your health at the same moment. Since you could lose energy easily in summer, the skin faces grave danger. Strong UV rays cause aging, while the scorching heat enlarges the pores. Also, the cool air from air-conditioners makes the skin dry, and lowers the body temperature suddenly which disturbs the natural circulation of heat and breaks the body balance. A number of old references on medicine, including <Donguibogam>, noted that the body heat is very closely related to the skin. Heat takes the moisture away from the skin which is necessary to maintain its firmness and discharge impurities from the skin. This is why the skin becomes dry and heated when the body temperature rises. Pores will enlarge to discharge heat, making your skin sag. Also, blood clots and residues generated by heat could block blood circulation, making the skin lacks nourishment and loses its repair capacity.



매트한 질감의 촛대와 살구색 화병, 블루 톤의 잔은 모두 박휘원 작가 by Att clay studio.  
노기쁨 작가의 양쪽으로 나뉜 디자인 오브제 화병, 미색 굵이 있는 볼과 미색 에스프레소 잔 받침 by 에리어플러스.

여름철에는 특히 머리와 얼굴에 열이 쉽게 모이기 때문에 이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름 제철 채소인 수세미와 감자는 뜨겁게 오른 열기를 식히는 약재로 오랫동안 사용됐다. 중국 명나라 때의 본초학자 이시진은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 “얼굴의 부스럼에 수세미를 발라준다.”는 단방을 전한 바 있고, 청나라 때 의서 <본초강목습유本草綱目拾遺>와 <본초종신本草從新>은 “수세미의 성질이 냉하여 해독에 뛰어나다.”고 기록했다. 수세미의 즙을 미용수로 사용하면 열기를 내리면서 수분을 채워주어 지친 피부를 편안하게 한다. 감자 역시 햇볕에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탁월하다. 감자의 알칼리 성질과 비타민 C, 칼륨 등은 피부 정화를 돕고 미백에 도움을 준다. 화상을 입었을 때 생감자 즙을 환부에 바르는 것은 널리 알려진 오랜 민간요법이기도 하다.

열기를 내려 진정된 피부에 풍부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도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동의보감>에서 진주는 특이하게 미용 외용제로도 언급되는데, 햇빛으로 생긴 주근깨와 반점을 제거해 얼굴을 윤택하게 하고 빛깔을 더욱 밝게 해주어 “가루를 내어 짓과 섞어 상시 발라준다.”고 전한다. 한편 한방에서 외용 약재로 즐겨 사용하는 약초인 맥문동과 천문동은 폐의 기운을 보충해 허한 몸을 보하고 피부를 윤기 나게 한다. 단종의 주치의였던 이선제는 천문동을 두고 “나이를 돌려 늙음을 물리친다.”고 언급했을 정도다. 그 밖에 살구씨 기름, 들깨 기름과 복분자 역시 거칠어진 피부에 기운을 주고 얼굴빛을 밝히는 천연 재료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올바르게 좇는 섭생과 섬세하게 돌보는 정성이야말로 아름다움에 이르는 가장 좋은 길일 터다. S

In summer,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boost circulation as the hot temperature easily stays on your head and face. Luffa aegyptiaca and potatoes in summer season have been used for a long time to cool the heat. The Chinese old references on medicine, <Bonchogangmokseubyu> and <Bonchojongsin>, say that “Luffa Aegyptiaca has a cooling effect on the body which is good for detoxification”. Using the juice from Luffa Aegyptiaca as toner will cool down and replenish the skin with moisture. Potatoes are also great for soothing the skin when it has been irritated by sun exposure. Moreover, the alkaline contents, Vitamin C, and potassium in potatoes purify the skin, and help with skin whitening. It is a popular folk remedy to apply the juice from fresh potato when you have burns. Do not forget to supply enough nourishment after your skin has been cooled and soothed. <Donguibogam> particularly mentions pearls as a skincare ingredient by saying “grind the pearls, mix them with milk and apply regularly”, which are effective for brightening and removing freckles and dots due to prolonged sun exposure. In oriental medicine, Liriope Platyphylla and Asparagus Cochinchinensis are widely used in skin treatment. They are known to strengthen the lungs for a healthier body and radiant skin. Sun Je Lee, the doctor of King Danjong, said Asparagus Cochinchinensis “turns back the clock to defy aging.” Other natural ingredients that energize rough skin and brighten the complexion include apricot seed oil, perilla seed oil, and Rubus Coreanus. A healthy diet for your body and mind with devoted care are the most ideal pathways to beauty.



연노란 도자기 잔은 강민경 작가 by 에리어플러스. 매트한 질감의 배 오브제와 노란 화병, 손잡이 달린 원뿔형 미니 화병은 모두 박휘원 작가 by Att clay studio. 높은 굽집시 by 정소영의 식기장.



## 깨끗하게 지우는 것이 스킨케어의 첫 단계 Cleansing is the first step of skincare

클렌징은 화장을 지우고 피부 노폐물을 닦아내는 것은 물론 피부 바탕을 다져주는 중요한 단계다. 설화수가 대나무를 구워 얻은 수액과 네 가지 성분의 복합체인 순행클렌징은수™를 담아 귀하게 만든 순행클렌징워터는 클렌징과 동시에 촉촉하고 편안한 피부로 바꿔주어 상쾌하고 든든하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서티스톡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콜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익히 알고 있듯이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 메이크업과 종일 생성된 피지, 미세먼지 등 각종 노폐물을 말끔하게 닦아내야 노화를 늦추고 맑고 고운 결의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피부 관리의 진정한 시작은 바로 깨끗하고 건강한 클렌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화수는 피부의 근본을 다져주는 클렌징을 보다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스테디 셀러인 순행클렌징 라인에서 순행클렌징워터를 추가했다. 순행클렌징워터에는 대나무를 고온에서 구워 한 방울씩 귀하게 뽑아낸 왕대수액을 담았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입이 험 것을 치료하고 소염과 항균 효과뿐만 아니라 진정과 보습 효과가 탁월하다고 전한다. 더불어 보습 효과를 선사하는 네 가지 원료의 복합체인 순행클렌징은수™를 함유해 클렌징 후에도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준다.

As you might already know, it is more important to cleanse after putting on makeup than wearing makeup itself. You could defy aging and maintain healthy skin with clarifying solutions and a fine texture by removing makeup and various impurities that have accumulated on your skin throughout the day, including sebum and fine dust.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cleansing is the true first step of skincare. Sulwhasoo has added Gentle Cleansing Water to the best-selling Gentle Cleansing Line for easier and more effective cleansing of your skin. Gentle Cleansing Water contains Phyllostachis Bambusoides Juice that is extracted one drop at a time after baking bamboo at a high temperature. <Donguibogam> states that it is effective in healing canker sores because of its anti-inflammatory and antibacterial properties that deliver soothing relief and hydration. It works in combination with Hydra Capture Complex™, which consists of four complex, hydrating ingredients, assuring that moisture flows smoothly and continuously on your skin.





투명한 컬러 그라데이션을  
투과하는 빛이 아름다운 화병  
'멜로우컬렉션'은 해던 제품.

**순행클렌징워터**

트리플미셀라 기술이 적용되어  
립과 아이 메이크업 베이스  
메이크업을 모두 효과적으로  
클렌징해주는 저자극 클렌징워터.  
귀한 왕대 수액과 보습 효과가  
뛰어난 순행청은수™가 피부를  
깨끗하고 촉촉하게 관리해준다.  
200ml 3만8000원대  
400ml 6만3000원대  
\*대용량 제품은 전국 백화점 및  
면세점에 7월 방문판매는  
8월 중순 출시

답답한 메이크업을 닦고 순하게 아름다워지는 시간이다. 하루 종일 고운 얼굴이 되어준 메이크업은 깔끔하게 지우고 수분 가득 채우는 순행클렌징워터의 지극한 정성은 맑고 건강한 피부로 다져준다. 물 세안 없이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트리플미셀라 기술이 적용되어 베이스 메이크업은 물론 립스틱과 마스크라까지 강력하게 흡착해 말끔하게 지운다. 동물성원료, PEG 계면활성제, 오일 등 피부에 자극을 주는 9가지 성분을 배제하였으며, 하이포알러제닉 테스트도 통과했다. 알레르기를 일으킬 확률이 적은 제품으로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물 없이 메이크업을 닦을 수 있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점이 무엇보다 매력적이다. 오래된 각질과 피부 깊숙이 쌓인 메이크업을 제거해 효과적인 스킨케어 시작할 수 있고, 립과 아이 메이크업을 수정해야 할 때도 유용하다. 선크림을 덧바르고 싶을 때 순행클렌징워터로 살짝 닦아낸 후 바로 밀리지 않고, 외출 시 야외에서 메이크업을 수정하고 싶을 때는 이전 화장을 지우고 보송보송하게 새로운 메이크업을 하면 된다. 운동을 하기 전이나 비행기 기내에서의 사용도 추천한다. 두루두루 활용도가 높은 순행클렌징워터는 기존 200ml 용량 외에 400ml 대용량도 한정 출시되어 여름철 상쾌한 클렌징을 책임진다. S

It is the time for wiping off heavy makeup and still staying beautiful. The devoted care of Gentle Cleansing Water thoroughly removes makeup, and replenishes the skin with moisture for clarity and health. It can be used gently without water, while the Triple Micellar Technology removes face makeup, lipstick, and mascara perfectly. It has passed the hypoallergenic test, proving that it is free of nine skin irritants, including animal-based ingredients, surfactants, and oils. It has low probability in triggering allergies, so it can be used safely even on sensitive skin. You could wipe off makeup without water, and it can be used for various purposes. It removes dead skin cells and makeup residues on the skin for effective skincare, and it is handy when you need to correct lip and eye makeup. When you want to apply another layer of sunscreen, gently wipe your skin off with Gentle Cleansing Water to prevent the sunscreen from caking. If you want to correct makeup outside in the middle of the day, use it to remove makeup before wearing fresh makeup. It is highly recommended to use it before exercise or while onboard a flight. The versatile Gentle Cleansing Water comes in a limited version of 400ml, in addition to the previous 200ml, which will take responsibility for your refreshing cleansing this summer.

순행클렌징워터  
사용법  
How to Use  
Gentle Cleansing Water



**Step 1**  
화장솜에 내용물을 충분히 적신 후 눈두덩에 5초 정도 가볍게 얹어준다. 속눈썹, 눈썹, 눈두덩, 눈 밑을 화살표 방향으로 클렌징한다.  
Thoroughly soak a cotton pad with Gentle Cleansing Water, and gently put it on your eyelids for 5 seconds. Follow the direction of the arrow to cleanse eyelashes, eyebrows, eyelids, and under eyes.



**Step 2**  
입을 '에' 모양으로 벌린 후 아랫입술과 윗입술을 좌우로 문질러 클렌징한다.  
Open your mouth and wipe your lower and upper lip from side to side to cleanse.



**Step 3**  
이마, 볼, 턱 순으로 인쪽에서 밖으로 피부 결을 따라 클렌징한다. 헤어 라인, 입꼬리, 입술 아래와 콧볼의 양옆 등 부위도 깔끔하게 클렌징한다. 목은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서 닦아낸다.  
Cleanse your skin, starting with the forehead, cheeks and then chin. Pay extra attention to the hair line, corners of your mouth, under lip, and sides of nostril. Finish by cleansing your neck starting from the bottom and moving upwards.



## 매력보다 우선하는 디자인은 없다

### Yang Jung Mo

산업 디자이너 양정모

그는 “기계가 찍어낼 수 없는 작품 하나하나의 독립성이 좋아 공예를 시작했다.”고 했다.  
 또 자신이 추구하는 디자인은 현란함보다 형태와 소재의 특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담백함이라고도 했다.  
 그의 궁극적 목표는 할머니에게서 손녀로 대물림될 정도로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매력을 가진 물건을 만드는 것”이다.

글과 진행 최태원 사진 전재호, 양정모스튜디오

먼저 많은 신예 디자이너들이 가구와 조명 작업에 주목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 경우에만 한정지어 말씀드리자면, 특별한 계기가 있거나 셀프 인테리어 같은 요즘 트렌드 때문에 가구와 조명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함몰되기 쉬워서 시류를 좇지 않습니다. 다만 제 경우엔 학창 시절부터 조명 관련 전시를 여러 번 진행했고, 가구 작업도 연이어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방향으로 오게 된 셈입니다. 학부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뒤, 디자인 에이전시에 잠시 근무했는데, 디자인이 딱 떨어지는 제품을 만드는 일은 지루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런 지루함을 탈피하고자 손맛과 다양한 재료가 주는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공예를 선택하게 되었고, 손에 익은 가구와 조명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옥의 옹마루 능선을 차용한 의자의 착상이 돋보이던데, 발상은 어떻게 하게 되었나요? 졸업 작품전을 앞두고 ‘왜 공들여 만든 작품을 전시가 끝나면 용도 폐기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목적을 바꿔 ‘전시를 위한 작품이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걸 만들자.’고 결정했죠.

First, I wonder why many new designers focus on furniture and lighting. In my case, in particular, I do not create furniture and lighting because of special milestones or the latest trends in DIY interior design. I do not go with the mainstream because it can easily be swept away. However, I had a number of exhibitions with lighting in school, leading me to work with furniture. After I majored in Industrial Design in university, I worked for a design agency for some time. Yet, it was boring to make products with simple designs, therefore, I decided to work with craft to feel the pleasure of handiworks in dealing with various materials. Then, I have started working with furniture and lighting to which I became accustomed.

The chair inspired by the ridge of Korean traditional houses is unique. What was your inspiration there? Before my graduation show, I thought, ‘why do I have to discard the artworks



한옥 지붕의 용마루 곡선에서 영감을 얻은 '용마루 스툴'과 새 모양 팔걸이 디자인이 적용된 '버드 체어'는 가구의 본질인 실용적 기능을 담으면서도 한국적 미감을 미니멀하게 표현한 양정모 작가의 대표 작품으로 손꼽힌다.

그 결과물이 '용마루 스툴(Stool)'입니다. 한옥의 수평마루인 용마루의 곡선에서 영감을 얻어, 미니멀하면서도 정형화되지 않은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죠. 그런데 당시는 디자인계에 '스토리텔링' 혹은 '스토리 라인'이 강조되던 때여서 '너무 단선적인 접근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도 스토리텔링으로 치장한 아티스트가 아닌 실질적 유저의 입장에서 접근했던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가구의 본질은 현란한 스토리라인이 아니라, 어떤 공간에 놓여 누구에게 유용한 사물이 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으니까요.

**이번 호 표지에 실린 '우븐 램프'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세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븐 램프(Woven Lamp)는 전통 한지에 고유의 패턴을 오프셋 방식으로 프린팅해 제작한 펜던트 조명입니다. 한지 특유의 질감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려는 것이 저의 의도였죠. 많은 분들이 조명이라는 일상 소품을 통해 빛을 은은하게 투과시키는 과정에서 형언하기 어려운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한지의 매력을 발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담긴 작품입니다.

**'용마루 스툴'과 함께 눈길을 사로잡은 작품이 팔걸이를 새 모양으로 만든 의자였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진 작품인가요?** '버드 체어(Bird Chair)'는 제

that made through hard work after the show?' So I decided to 'make something I could use, not just for the show.' The outcome was 'Yongmaru Stool.' I was inspired by the curves of Yongmaru, the horizontal platform of Korean traditional houses, and applied the design of minimal yet undefined. However, at that time, the design sector stressed 'storytelling' or 'story line,' so people thought I was 'too unilinear.' But I still think that my approach from the view of an actual user was right, instead of being an artist ornamented with storytelling. I believe the essence of furniture is not a storyline, but how useful it could be for someone within a space.

**Could you tell us about the 'Woven Lamp' on the cover?** Simply put, Woven Lamp is the pendant lighting created by offset printing traditional patterns on traditional Korean paper. I intended to create a smooth and warm feel with the unique texture of Korean paper. I hope that many people could discover the charm of Korean paper which produces indescribable beauty in the process of penetrating light in everyday objects.



첫 작품입니다. 학생 때 오리지널 가구 컬렉션이 전시된 공간을 방문했다가 '왜 우리 디자이너의 작품은 없지?' 하는 생각이 들어 의욕적으로 직접 만든 작품이죠. 당시 일하던 가구 갤러리의 워크숍을 통해 제작하게 되었는데, 캠핑 의자에 새가 앉아 있는 모습에서 모티프를 얻어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 모양의 팔걸이에만 시선을 주는데,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제작 과정에서 '팔걸이'와 '좌판', '등받이' 부분이 조화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첫 작품이 해외 매거진에 소개되고 실제 판매까지 이뤄졌으니 운이 좋은 작품이네요.

**프로토타입을 앞에 두고 오랜 시간 지켜보는 것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강인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아주 작은 불편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불편한 의자에 앉는 일은 고역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사소한 하자 하나까지 제거하기 위해 기다림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죠. 어제는 보이지 않았던 결함이 오늘 보이기도 하고, 내일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기능이 완성된 뒤에 디자인이 더해지고, 그다음은 매력이죠. 한두 해 사용하다가 버리는 의자도 있지만 할머니의 의자에서 늙어가는 손녀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으려면, 물건은 말로 설명하기 힘든 매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인보다 앞선 덕목이 매력이라고 믿습니다.

**The chair with the armrest in the shape of a bird was as eye-catching as the 'Yongmaru Stool.' How was it made?** 'Bird Chair' was my very first piece. In university, I visited an exhibition of original furniture collections once, and I found out there was no piece made by a Korean designer. Hence, I created the piece at the workshop of the furniture gallery where I was working for at that time, and I was inspired by a bird on a camping chair. Many people focus on bird-shaped armrests, but I focused on the harmony of armrests, seats, and backrests as a designer. I was lucky since this very first piece was introduced by an international magazine, and was sold.

**I heard that you complete your pieces by observing the prototype for a long time.** People seem like they are strong beings, but they are sensitive even to the slightest discomfort. It is particularly hard for them to sit on a chair that is uncomfortable. So I invest time on removing any minor flaw, because a hidden flaw could be recognized at any time. After the function is done, next are the design and the charm. There are chairs that you throw away in a year or two, but there should also be granddaughters growing up

기능적으로 완벽하고 매력까지 겸비한 의자라고 하더라도 너무 비싸면 또 문제겠죠. 제작 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까지도 디자이너의 몫이 아닌가 싶네요.

**모든 예술이 '사람'을 탐구하듯 공예가도 그럴 텐데, 어떻게 탐구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타인을 탐구하거나 사랑할 정도의 인류애는 없나봅니다. 그래서 잘 알 수 있는 대상인 자신과 가족들을 탐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만든 의자를 저나 가족이 사용하면서 불편해할지 여부를 늘 염두에 두고 디자인합니다. 때문에 강한 실험성보다는 우리 가족의 거실에 어울릴 수 있는 기능과 매력을 가진 물건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옷칠 브랜드'를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들과 같은 걸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작가는 없습니다. 결국 '다름'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해부터 무형문화재 이수자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옷칠 브랜드 역시 다름을 추구하는 하나의 프로젝트죠. 옷칠이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용마루 의자에 광택을 내기 위해 옷칠을 활용하기도 하고, 컵의 덮개 부분에도 기술적 접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높은 원료기'와 '긴 공정'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걸림돌이 자꾸 도전하게 만듭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잘 해결해 합리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올해 안에 성취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궁금합니다.** 올 연말까지 2개의 전시를 계획하고 있는데, 잘 준비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들기 쉽고 가격도 적당한 의자를 만들려고 해요. 물론 복제품에 대한 우려가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런 우려보다 매력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욕망이 더 크니까요, S

using their grandmother's chair. To create such a timeless design, it should have indescribable charm. So I believe that charm comes before design. Even a functionally flawless and charming chair should not be too expensive, either. I think it is also the designer's job to minimize cost in the production process.

**As all fields of art explore 'people,' so do craftsmen. I wonder how you explore people.** I may not be very philanthropic in exploring or loving random people I don't know. Therefore, I would like to explore myself and my family. For example, I always consider whether my family or I would feel comfortable sitting on my chair. For that reason, I try to create functional and charming objects that go well in my family's living room rather than those with much experimentation.

**I heard that you are planning to create a 'lacquer brand.'** No artist contemplates making something that others make. There is no other choice but to strive to be 'different'. The lacquer brand, which I have been carrying forward with a successor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ince last year, is also a project to be different with others. Lacquering inhibits bacterial proliferation. I also use lacquering to add gloss to the Yongmaru Chair, and I am trying to apply it technically on cup lids. Problems, though, are the 'high cost' and the 'time-consuming process.' Ironically, those setbacks make me even more eager. I want to solve these problems and come up with reasonable products.

**What are the projects you plan to achieve before the end of this year?** I am planning two exhibitions by the end of this year, and I want to do well with them. I am trying to make chairs that are easy to build and reasonably priced. I have concerns with replica, of course, but my desire in making charming pieces prevails.



양정모 작가는 옷칠 무형문화재 이수자와의 협업을 통해 다름을 추구하는 프로젝트를 도전한다. 옷칠 작업의 높은 원료기와 긴 공정의 문제점을 해결해 합리적인 상품을 선보일 그의 프로젝트가 기대된다.



## 자연과 오래된 것, 새로움의 기막힌 조화

### AWON Museum & Hotel

아 원 고 택

250년 되었다는 고택의 누마루에 앉으니 소백산맥 끝자락에 우뚝 솟아난 종남산이 마주 바라본다.  
암전하게 정렬된 처마 끝 너머 짙푸른 녹음을 자랑하는 그 산이, 세상의 문제는 잊고 지금은 그저 나를 바라보라고 말하는 듯하였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이종근



아원 고택은 전통 한옥과 현대적 건축, 자연이 함께 보기 좋게 어우러진 드문 공간이다.  
안에서 바라보는 바깥의 풍경은 좌식 생활의 눈높이에 알맞게 낮고 넓어 산과 하늘, 한옥의 처마가 한눈에 담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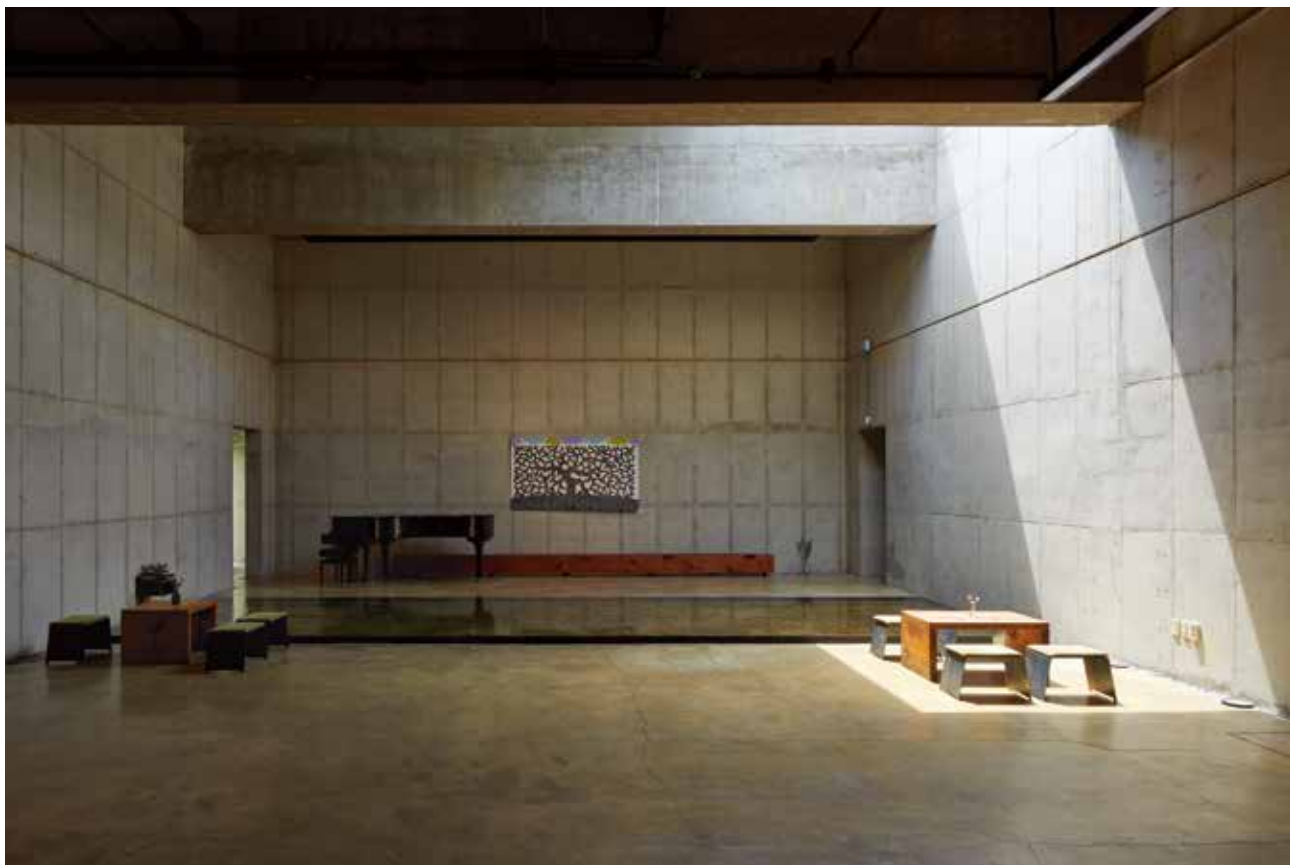
아원은 전북 완주 종남산 골짜기에 자리한 오성마을의 한옥 스테이 겸 뮤지엄이다. 경신년에 지은 경남 진주의 250년 된 한옥을 옮겨 오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했다. 이곳을 기획하고 완성한 전해갑 대표는 25세에 이 터를 처음 발견했다. 잘생긴 나무처럼 당당하고 위엄 있는 종남산이 마주하고 오성저수지의 물안개가 신비롭게 피어오르는 이곳의 아름다움은, 젊디젊었던 그를 매료시켰다. 오랜 시간이 지나 이 부지에 오래된 고택을 고스란히 옮겨 왔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오늘날 아원의 모습이 완성되었다. 자연에 지지 않으나 이기려 들지도 않는 한옥이야말로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건축이었다. 그의 판단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 아원은 자연과 인간의 건축이 서로의 배경이 되어주며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가장 다정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아원에 도착해 처음 들어간 곳은 뮤지엄이다. 실내로 들어섰지만 하늘이 보인다. 발 아래엔 얇은 물이 잘랑인다. 개방이 가능한 천장으로 보이는 하늘이 한없이 푸르고 그 빛이 조명처럼 실내를 비춘다. 노출 콘크리트로 현대적인 감각을 전하는 탁 트인 이 공간은 예술가의 갤러리로, 공연장이자 방문객을 위한 카페로 운영되고 있다. 뮤지엄을 지나 좁고 긴 계단을 통해 바깥으로 나간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이 길은 현대에서 과거로 통하는 관문이기도 하다. 계단의 끝에 서면 왼편엔 아원 고택이, 오른편으로 야트막한 대숲 언덕이 보인다.

아원 고택은 천지인, 사랑채, 안채, 별채 4개의 동에 11개의 객실로 구성되었다. 가장 앞쪽에 위치한 천지인은 '만사를 제쳐놓고 심을 얻는 곳'을 뜻하는 '만휴당'이라는 별칭을 가진 현대식 한옥으로, <발효가족>이라는 드라마의 촬영지로 알려져 있다. 종남산과 가장 가까운 건물로 앞쪽에 잔잔

AWON is a Korean traditional mansion and museum in Oseong Village, which is located in a valley along Mt. Jongnam in Wanju, Jeonbuk. It is a cultural complex that was built after the 250-year-old Korean traditional mansion was transferred here from Jinju, Gyeongnam. President Hae Gap Jeon, who curated and oversaw the completion of this venue, first discovered this site at the age of 25. Its beauty mesmerized the young man, as Mt. Jongnam's confidence and dignity stands tall as a gorgeous tree from afar amid the mysterious mist of the Oseong Reservoir. The old mansion was transferred here, and it led to today's AWON. The Korean traditional mansion, which would neither surrender to nature nor dominate it, was the type of architecture which could appreciate nature as it is. His judgment was not wrong at all. AWON could boast of having the friendliest view where nature and human architecture create back-grounds for each other.

The first place I visited in AWON was the museum. I stepped into the space, but I could still see the sky. There was shallow water waving beneath my feet. The sky outside the retractable roof was very blue, and its light made the space appear brighter. Presenting a modern sentiment with exposed concrete, this open space functions as a gallery or a concert hall for artists, and also as a café for visitors. After passing through the museum by long and narrow stairs, it directs to the outside. This path from the basement to the ground floor is also a gateway from the present to the past. When you stand at the end of the stairs, there is the AWON Mansion



히 흐르는 연못에 하늘 그림자가 고요하게 담긴다. 물의 저 끝이 만들어내는 가느다란 선은, 압도적인 자연 풍광과 만나 자신이 경계인 듯 아닌 듯 바람과 숨바꼭질한다. 만휴당의 대청에서 앉아 있으니 산에서 부는 서늘하고 상쾌한 공기가 진득한 땀을 산뜻하게 식힌다. 좋은 벗들과 다시 여기에 와 차 한잔을 한다면 얼마나 근사할지, 반드시 다음을 기약하고 또 다짐한다. 만휴당의 소쇄문을 지나 오른쪽으로 걸어 올라가면 옛 선비들의 공간인 사랑채, 연하당이 있다. '안개와 노을이 있는 곳'을 뜻하는 연하당은 경남 진주의 고택을 옮겨놓아 옛 구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연하당을 돌아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채인 설화당이 나온다. 가장 내밀한 곳에 위치한 이 한옥은 단아하고 소박한 절제미가 돋보인다. 안방의 창을 열면 앞마당의 연못과 소나무, 중남산의 풍경이 하나로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이 된다. 이때 한옥의 처마와 장지문의 문살은 훌륭한 액자다. 한편 별채인 천목다실은 안채와 연결되어 있는데 뮤지엄과 마찬가지로 노출 콘크리트의 현대적 건축물이다. 한옥살이에 따르는 불편함을 보완한 대안으로, 설화당과 연하당의 처마보다 야트막하게 지어 전체적인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 또한 그 안에 앉으면, 낮고 옆으로 길게 낸 창으로 바깥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버선코처럼 동실 솟아오른 처마선, 옹기종기 모여 앉은 장독대 가족이 정겹고 애뜻하다. 새로운 것에는 새로운 멋이 있고 오래된 것 역시 연륜이 만드는 깊이와 철학이 있다. 그렇다면 그 둘을 조화롭게 이어가는 노력은 얼마나 또 멋지고 아름다운가. 아원에는 그러한 좇음과 열정이 은은하면서도 가득했다. S

#### 아원 고택 가는 길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 평택화성고속도로  
- 논산천안고속도로 - 익산포항고속  
도로 - 소양TG - 해월교차로 - 원암로  
교통문화연수원 방면 고속버스를  
이용할 때는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타서 경천면 시외버스 정류소에서 내린  
후 택시를 이용한다. 기차는 용산역에서  
탑승한 뒤 익산역에서 내려 택시를  
이용하면 50분 정도 소요된다.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송광수만로 516-7  
**예약 문의** 063-241-8195,  
063-244-7116, www.awon.kr

하늘이 열리는 모던한 감성의 갤러리 위로 한옥이 고요히 자리 잡고 있다. 지면을 경계로 위아래 존재하는 현대와 과거가 마치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같다.

to the left, and a low hill of bamboo forest to the right. AWON Mansion offers 11 guest rooms in four buildings: Cheonjiin, Sarangchae, Anchae, and Byeolchae. The first building is Cheonjiin, which is a modern-style, Korean traditional building nicknamed 'Manhyudang,' meaning 'a place of shelter for an escape from everything.' It is closest to Mt. Jongnam, and contains shadows of the sky in the calmly flowing pond in front. Sitting on the open platform of Manhyudang, the cool, fresh breeze from the mountains blows perspiration away. Past Manhyudang's Soswaemun on the right is Yeonhadang, which was the space for traditional scholars. Meaning 'a place of fog and dusk,' Yeonhadang is a traditional house that moved here from Jinju and has still preserved its original structure. After take a turn around Yeonhadang and go deeper inside, there is Seolhwadang, the main house. Finally, the detached house that connected to the main house is still a modern building of exposed concrete in the same manner of the museum. It is an alternative to supplement the inconvenience of living in a Korean traditional house, built lower than the eaves of Seolhwadang and Yeonhadang, which does not disturb the entire view. A novelty has something fresh, yet something aged also has the depth and the philosophy of history. How gorgeous is the effort in blending the two in harmony? AWON was filled with delicate mood of such pursuit and passion.



# 빛의 도시, 쿠알라룸푸르를 밝히는 설화수 A longing heart is as deep as a lake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는 다양한 인종과 아름답고 현대적인 건축물,  
우리에게는 낯선 이슬람 문화 등이 어우러진 모자이크 같은 도시다. 다채로운 빛이 모여 매력적인 문화와  
풍경을 만드는 이곳에 설화수의 홀리스틱 뷰티가 찬란히 스민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서티스톡





### 다양한 인종과 문화, 찬란한 건축물이 어우러지다

쿠알라룸푸르는 밤이 아름다운 도시다.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높은 88층 높이의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가 하얀 빛을 밝히면 빌딩 바로 앞에서는 클래식 음악과 함께 화려한 분수 공연이 펼쳐진다. 이슬람 건축물의 기하학적인 구조를 본떠 디자인한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채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선사한다. 쌍둥이 빌딩 사이를 가로지르는 '스카이 브리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다리로, 이곳 전망대는 여행자들에게 인기다. 하늘을 뚫고 떠다니는 듯한 황홀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

쿠알라룸푸르의 밤을 수놓는 다양색의 건축물 중에서도 이국적이고 황홀한 빛을 내뿜는 곳은 도심 곳곳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들이다. 특히 20세기 초반에 지어진 자맥 모스크와 1965년 현대식으로 지어진 국립 모스크는 독특한 지붕과 하늘을 찌를 듯한 첨탑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늦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쿠알라룸푸르의 명동 '부킷 빈탕'에서의 쇼핑과 낮보다 밤이 더 화려한 말레이시아 왕궁도 빛의 도시 쿠알라룸푸르를 밝힌다. 영국 식민지를 거치며 들어선 오래된 서양식 건축물과 현대의 마천루가 어우러지고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 등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며 만들어낸 독특한 문화 또한 쿠알라룸푸르를 아름답게 채운다.



### The light of harmony of diverse races, cultures and sophisticated structures

Kuala Lumpur is more beautiful at night. When the 88-story Petronas Twin Towers, the eighth tallest building in the world, turns on its white lights, a beautiful water fountain concert accompanied by classical music can be witnessed right in front of the buildings. The Petronas Twin Towers, which were designed after the geometric structures of Islamic temples, present a diverse array of beauty from different angles. The 'Sky Bridge' that connects the Twin Towers is located on the highest level in the world. The observatory on the bridge is very popular among tourists, since you could experience the fantastic feeling of floating in the sky. Among the various unique structures lighting up the night in Kuala Lumpur, the most exotic and mesmerizing light comes from the Islamic temples throughout the city. Masjid Jamek from the early 20th century and the modern Masjid Negara built in 1965 capture your eyes with their unique roofing and the pointy towers that seem to reach the sky. Bukit Bintang, an up-and-coming hot spot in Kuala Lumpur, stays bright even late at night while the Malaysian Palace lights up the city more brightly at night. The blend of old-fashioned western-style buildings built during the English colonization period and modern skyscrapers and the coexistence of Malaysian people, Chinese people, and Indian people create a unique culture that adds to the beauty of Kuala Lumpur.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랜드마크인 쌍둥이 타워 '페트로나스' 앞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분수 공연과 영롱한 빛을 밝힌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의 풍경은 놓치지 말아야 할 볼거리다.



쿠알라룸푸르 내 설화수 신규 매장 입점 지역

### 설화수의 지극한 정성이 아름다움을 밝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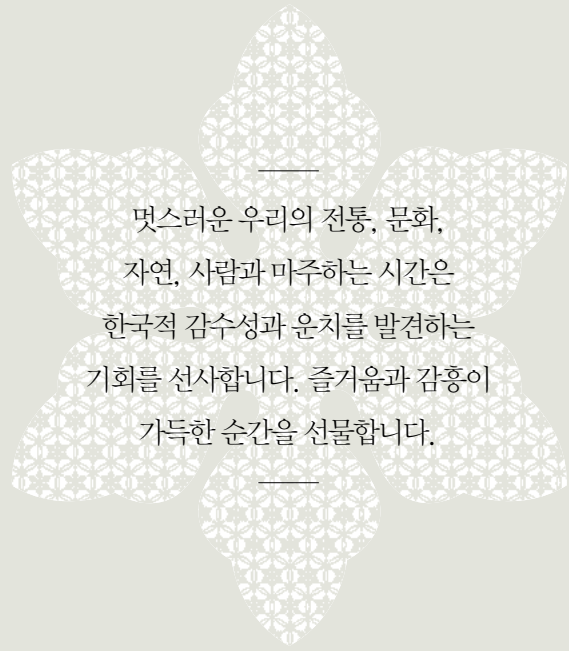
2013년 말레이시아에서 설화수가 처음 소개된 이후 열두 번째 매장이자 두 번째 로드숍이 지난 4월 쿠알라룸푸르 미드 밸리 메가몰에 오픈했다. 이 로드숍은 한방의 정수를 전하고자 설화수의 새로운 5세대 매장 디자인을 적용해 설화수의 홀리스틱 뷰티 철학인 조화와 균형의 의미를 전하는 동시에 고객들이 설화수를 오감으로 만끽할 수 있도록 꾸몄다. 미드 밸리 메가몰 부티크 매장에 들어서면 기품 넘치는 매화의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표현한 상들리에와 설화수의 지혜가 담긴 한방 원료들이 한데 어우러진 '아시아 위즈덤 존'을 먼저 만나게 된다. 고객들은 이곳에서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그려내는 미감을 느낄 수 있다. 고객 맞춤 상담을 통해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등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고객들의 피부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고 설화수를 처음 접하는 고객들을 위해 스타터 세트를 다양하게 마련했다. 설화수의 시그니처 제품인 윤조에센스와 자음생크림을 체험할 수 있는 '퍼스트 케어 존'과 '베스트셀러 존'에서는 설화수만의 차별화된 피부 관리법을 체험할 수 있다. 대표 제품들 외에도 두 가지 종류의 시그니처 향을 품은 캔들과 포푸리 등의 향 제품, 비누, 보디 제품 등으로 보다 다채롭게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설화수의 그윽하고 지극한 정성을 누릴 수 있는 로드숍은 이후 말레이시아의 다른 지역에도 문을 열어 한국적 아름다움의 지혜를 전파할 계획이다. S



말레이시아에서 두 번째 로드숍으로 오픈한 쿠알라룸푸르 미드 밸리 메가몰의 설화수 매장은 5세대 디자인이 적용되어 브랜드와 제품을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다. 향 제품과 보디 제품 등 로드숍 전용 상품을 구성해 다채로운 설화수를 만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 Sulwhasoo's devoted care brightens up beauty.

After Sulwhasoo first opened in Malaysia in 2013, the sixth store and the second road shop just opened at the Mid-Valley Megamall in Kuala Lumpur last April. The 5th-generation design scheme was applied for this city of colorful splendor to represent the philosophy of Sulwhasoo's holistic beauty-harmony and balance-and to invite customers to experience Sulwhasoo through all five senses. When you enter the Mid-Valley Megamall's boutique store, you could feel the sense of aesthetics portrayed by the harmony of tradition and modernity at the 'Asian Wisdom Zone.' The 'Asian Wisdom Zone' features a chandelier that elaborately expresses the graceful beauty of plum blossoms and the Korean herbal medicinal ingredients representing Sulwhasoo's wisdom. With personalized counseling, Sulwhasoo strives to resolve skin-related concerns of various races from Malaysia, China, India, and so on. Also, Sulwhasoo serves the customers who encounter Sulwhasoo first time with different kinds of 'starter set'. At the 'First Care Zone' and 'Best Seller Zone', customers could experience Sulwhasoo's signature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and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Customers are introduced to the importance of the first step of skincare and are given the opportunity to try fragrance and body products, including candles, soaps, and potpourri in two signature fragrances. Sulwhasoo is planning to open more road shops in Malaysia to share its devotion and promoting the wisdom of Korean beauty.



멋스러운 우리의 전통, 문화,  
자연, 사람과 마주하는 시간은  
한국적 감수성과 운치를 발견하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즐거움과 감흥이  
가득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가  
문  
다  




유난하진 않지만 유난히 빛나는  
음악 하는 김윤아

Not so extraordinary, yet with a one-of-a-kind glow  
Yoon Kim on Music

# Kim Yoon A

김 윤 아

“우리는 양쪽 방향을 다 보아야 한다. 별에 대한 지식으로 가는 길은 원자로 통하고, 원자에 대한 지식은 별을 통해 얻어진다.” 영국의 천문학자 아서 에딩턴의 말이다. 김윤아 식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저는 양쪽 방향을 다 살피요. 음악은 삶을 관통하고, 삶은 음악의 길로 나아가죠.”

글 이재영 사진 전재호

## 김윤아가 예술을 하는 방법

숲과 인간이 그렇듯 돌아보니 김윤아와 대중은 언제나 유기적인 관계였다. 떼려야 뗄 수 없게 서로 밀접해졌다. 오랜 시간 우리는 김윤아를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었다. 대체 무엇이 우리를 한데 엮어놓았을까? “지금 이 시대에 함께 존재하는 사람들의 삶이 제게 큰 영감이 돼요. 그들이 어떤 걸 원하고, 어떤 행복을 바라고, 무엇으로 인생을 꾸려가는가에 관심이 많아요. 타인의 삶을 많이 관찰하죠. SNS를 하고 있는데 내 삶을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남의 삶을 들여다보는 재미가 커요. 관찰하면 할수록 드는 생각은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떤 환경이건, 어떤 일을 하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는 게 삶의 이유예요. 안 그러면 재미없고 슬프잖아요.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진 보통의 삶을 노래하니 더 공감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서로 가까워진 것은 김윤아의 이런 태도 때문이었던 듯하다. 이미지만으로는 예민한 아티스트로 세상과 격리되어 자신을 고립시킬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것은 그가 원하는 예술이 아니다. 시선을 밖으로 보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이 김윤아가 예술을 하는 방법이다. “처음에 데뷔해서 2, 3년 동안은 힘들었어요. 길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 나를 매우 잘 아는 것처럼 말을 거는 게 너무 싫고 혼란스러웠죠. 그러다 점점 좋아졌어요. 음악을 하는 나와 일상을 사

### The way Yoona Kim creates art

Just like forests and people, Yoona Kim and the public always have been organically related, in other words, they are inextricably linked for a long time. She has consoled and encouraged the public since the year dot. Then, what is Yoona's charming figure that makes people as her admirers?

“The lives of people in the contemporary time give different inspiration to me. I am interested in what they desire, what kind of happiness they want, and how they live their lives. I observe others' lives with attention. I am active on SNS, and it is more fun to look into others' lives than to share my own. Through observation, I learn that they live to be happy, and I do, too. The purpose of life is to be happier than you are right now, no matter where you live and what you do. Otherwise, it is not fun, and it is just sad. Therefore, I am singing something about ordinary life which including the way to be happy, and I believe this is why people sympathize with my songs.”

We have become closer probably because of Yoona Kim's attitude. She may look like a sensitive artist who isolates herself from the world, but that is not an artist for her. Looking outside to listen to others' stories – that is the way she creates art.

“I had a hard time for the first 2-3 years. I hated it when people I do not know talked to me





에어캡과 발포지로 도자기 형태를 만든 (Un-ceramic)은 정혜숙 작가의 작품.

는 나를 구분했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고 그 길로 접어든 것이니 거기에 맞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결론 내렸죠. 그러다 보니 음악도 삶도 다 하나가 됐어요. 그렇다고 몽뚱그리진 않았고, 하나하나 각자의 자리에서 균형을 잘 잡고 김윤아의 인생을 만들어어나가고 있죠.”

김윤아는 분명하다. 음악도 삶도 모두 자신의 인생이다. 그는 매일 세차게 물을 빨아들이는 숲속의 나무처럼 세상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모든 것을 흡수한다. 그것이 음악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전부 머금고 싶다. 길을 가다 꽃이 피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듯, 찾아 듣지 않아도 곁에서 문득 위로가 되어주고, 늘 함께해 주는 좋은 음악을 만들었으면 한다. “음악은 유난한 게 아니에요. 그저 음악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곁에 두면 참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클렌징 제품으로 설화수를 써왔어요. 쉽게 트러블이 생기는 피부라 맞는 제품을 찾기 어려웠는데 운 좋게 알게 됐고 지금까지 꾸준히 쓰고 있죠.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을 찾아내고 매우 기뻐요. 존재만으로安心이 됐죠. 음악도 그래요. 없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심각한 생활의 불편을 초래 하진 않아요. 좋은 클렌징 제품을 찾지 못한 것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큰일이 아닌 것처럼요. 다만 발견하고 받아들이면 인생이 조금 편안하고 즐거워지죠. 그래서 ‘그저 음악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이 필요해요.”

삶에서 시작돼 다시 삶으로 나아가는 음악. 음악은 유난한 게 아니라는 김윤아의 음악은 그래서 유난히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다.

like they know me well, and it was confusing. Then I learned to enjoy it. I divided myself into two – a musician and an ordinary person. I concluded that I chose to live this way, and I have to be responsible for my decisions. So, music has become a part of life. I have not blurred anything, but each part is building up in my life in balance.”

Yoona Kim is straightforward. Music is a part of her life. She absorbs everything beautiful in the world, like the woods that absorb tons of water every day. This is even truer when it comes to music. She wants to absorb it all. Like flowers on the road that attract your attention naturally, she seeks to make music that comforts you unexpectedly, and stays around you all the time.

“Music is nothing extraordinary. Simply, it is just music. But it is nice to have around. For example, it is like this: I have used Sulwhasoo for cleansing. It was hard for me to find a product that is right for my trouble-prone skin, but I was lucky to have been introduced to it. I have been using it ever since. I was very happy to have found a product without worrying about side effects. Its existence comforted me. This is also same for music. It doesn't cause any serious inconvenience even when it is not around, just like not being able to find a good cleanser is not the end of the world. But once you discover it and bring it into your life, your life would be a little better. So, music is just music, but you need it nonetheless.”

The music that comes from life heads toward life. Yoona Kim's music stays in your heart for a long time because it is not extraordinary.

## 스물한 살, 청춘의 자우림

스물한 살이 된 자우림의 새 앨범은 청춘의 노래들로 채웠다. “밴드는 인간이 하는 것이고, 세월이 흐르면서 연주나 소리 그리고 철학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게 당연하다.”는 김윤아. 자우림은 늘 같은 청춘을 이야기하지만 이미 생각의 부피가 달라진 무르익은 청춘이다. “벌써 자우림 데뷔 21년이네요. 여름에 데뷔해서 작년 여름에 20주년 기념 공연을 했어요.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새 앨범도 나오고 해서 올해 다시 공연을 열어요. 공연 제목은 ‘청춘예찬’이에요. 이미 다들 나이를 먹었지만 물리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자우림이라는 팀은 청춘인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해왔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과 갈증에 대한 것이 음악의 기본이 되었는데 이 두 가지는 청춘의 심벌이잖아요. 늘 청춘을 노래한 밴드였고, 21주년이면 자우림 나이 스물하나. 그 자체로 청춘이죠.”

1997년 첫 앨범을 내고 데뷔해 21년, 열 장의 앨범을 낸 밴드. 우리나라 음악 현실에서 대부분의 밴드는 안개 같았다. 신비롭게 나타났다가 어느새 인가 사라졌다. 그러나 자우림은 애초부터 숲을 택했다. 자우림은 안개가 아닌 숲의 모습으로 남았다. 이름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자줏빛 비가 내리는 숲. 아름다운 숲은 오래도록 기꺼이 감성의 쉼터가 되어왔다. 그리고 그 숲은 21년이 지나면서 더 무성하고 산뜻해졌다. S

### 21 years old, Youth of Jawoorim

The new album of Jawoorim, a band that was formed 21 years ago, is filled with songs about the youth. “A band is composed of people, so it is obvious that a band's performance, sound, and philosophy grow and change over time,” says Yoona Kim. Jawoorim always sings about the same youth, but the volume of ideas has matured. “Twenty-one years has passed since our debut. We debuted in the summer, so we had a special concert for our 20th anniversary last summer. We are planning for another concert this year because we had some regrets, and we have a new album now. The title of the album is ‘Admiration of Youth’. All our members have aged, but Jawoorim, as a team, has always talked about the youth regardless of our physical age. The fundamentals of our music are about loneliness and the thirst of people, which are the symbols of the youth. We have always sung about the youth, and Jawoorim is only 21 years old, which means we are still young.” It has been 21 years since the first album was released in 1997. The band has released 10 albums since. Most bands have been like mists in Korea's music industry. They appeared magically, and disappeared in no time. But Jawoorim chose to be a forest. Jawoorim has remained as a forest, not a mist. Even their name tells us: A forest with violet rain. The beautiful forest has been the shelter of our sentiments for a long time. The forest has become more luxurious and refreshing after 21 years.

메이크업 김활란 헤어 이주희(김활란 뮤제네프) 스타일리스트 오영주 도움 주신 곳 라실루엣드유제니(02-518-3305), 사이미(070-7257-4398), 페르테(02-517-5515), 나무하나(02-3442-7567)





## 유유자적, 여름 풍류가 담긴 집

에어컨도 냉장고도 없던 시절, 선조들은 나뭇의 지혜로 먹먹한 더위도 기꺼이 즐겼다.  
옛 어른들이 느긋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만끽했던 여름 나기의 멋과 맛을 오늘날의 집 안으로 들였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1 테라시질레타 기법의 달항아리와 불은 송태석 작가 by 드도트, 2 대나무와 스틸을 결합한 벤치는 정소이 디자이너 by 보머스 디자인, 3 삼베 옷칠 소반은 앤드바움 by 해브빈서울, 4 청자 주병 세트는 이은범 작가 by 대한민국명인명장 한수, 5 보라색 줄무늬 합은 강화도령화문석, 6 보라색 주병과 불은 박서연 작가, 7 옷칠 굽 트레이는 허명욱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8 타원형 체리나무 소반은 안문수 작가, 9 오색 꽃 미니 단합은 강화도령화문석, 10 초록색 옷칠 트레이는 허명욱 작가 by 조은숙 갤러리, 11 팔각 다과상은 남귀연 작가 by 강화도령화문석, 12 돛자리는 강화도령화문석, 13 바다 사진 80호 캔버스 《物-Horizon》(Printed on Oxford)은 권나리 작가, 14 도자기 원형 오브제 《物-Moon》(Glazed Ceramic)은 권나리 작가.

## 더위를 이기는 슬기를 되새기다

조선시대의 왕이 신하들에게 책을 읽으며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한 '사기독서(賜暇讀書)'의 피서법도  
 집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호사다. 왕궁을 엮은 화문석 자리에서 조용히 책을 읽다 스르르 잠들면 그만한 유유자적이 없다.  
 화문석은 예로부터 통풍이 잘되고 수분을 조절해 더위를 식혀주며, 아름다운 문양으로 '꽃자리라 불린 여름의 명물이었다.  
 일가친지들이 모여 음식을 먹으며 건강하게 무더위를 이겨내길 기원했던 여름 명절인 유뒸날(음력 6월 15일)  
 풍습은 가족, 지인들과 시원한 화채와 차를 나누며 그 의미를 되새길만 하다.



**왼쪽 페이지** 1 골드 포인트의 다관은 윤상현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2 단아한 사발은 취 프로젝트 by 대한민국 명인명장 한수. 3 팔각 월넛 소반은 안문수 작가. 4 블루 다관 세트는 모두 토림도에. 5 분홍과 다홍빛 도자기 합은 모두 에리어플러스. 6 초록색 옷칠 원형 반은 김나연. 김이람 작가 by 첩터원. 7 원형 주철 원반은 양병용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8 핑크색 보자기는 호호당. 9 그린 블루 컬러 물잔은 에리어플러스. 10 아이보리색의 화병은 지승민의 공기. 11 머스터드 컬러 숯칠 매트는 허명욱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12 단 옷칠 플레이트는 허명욱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13 사각 실크 방석은 참 데코.

**오른쪽 페이지** 1 산수 풍경이 그려진 화문석 돗자리는 강화도령화문석. 2 지끈 스톨은 표가구제작소. 3 황동 도시락은 류연희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4 녹색의 곡선 병풍은 뷰로 드 콜로디아제작. 3단 책장은 김현수 작가 by 기브앤테이크공방. 6 골드 포인트 장식의 화병과 굽 접시는 모두 이혜미 작가. 7 모듈러 소반은 권원덕 작가 by 예울. 8 산수 화훼 도장을 모티프로 한 수첩은 KODF갤러리숍. 9 노랑 작은 집 모양의 도자기 오브제는 김정옥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10 도자 필통은 이혜미 작가(필통 작업실) by KODF갤러리숍. 11 월넛 와인 잔은 안문수 작가. 12 미니 도자 화병은 토림도에. 13 블랙 상판의 주철 원반은 양병용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 포인트는 DES21로 단아드워드 노원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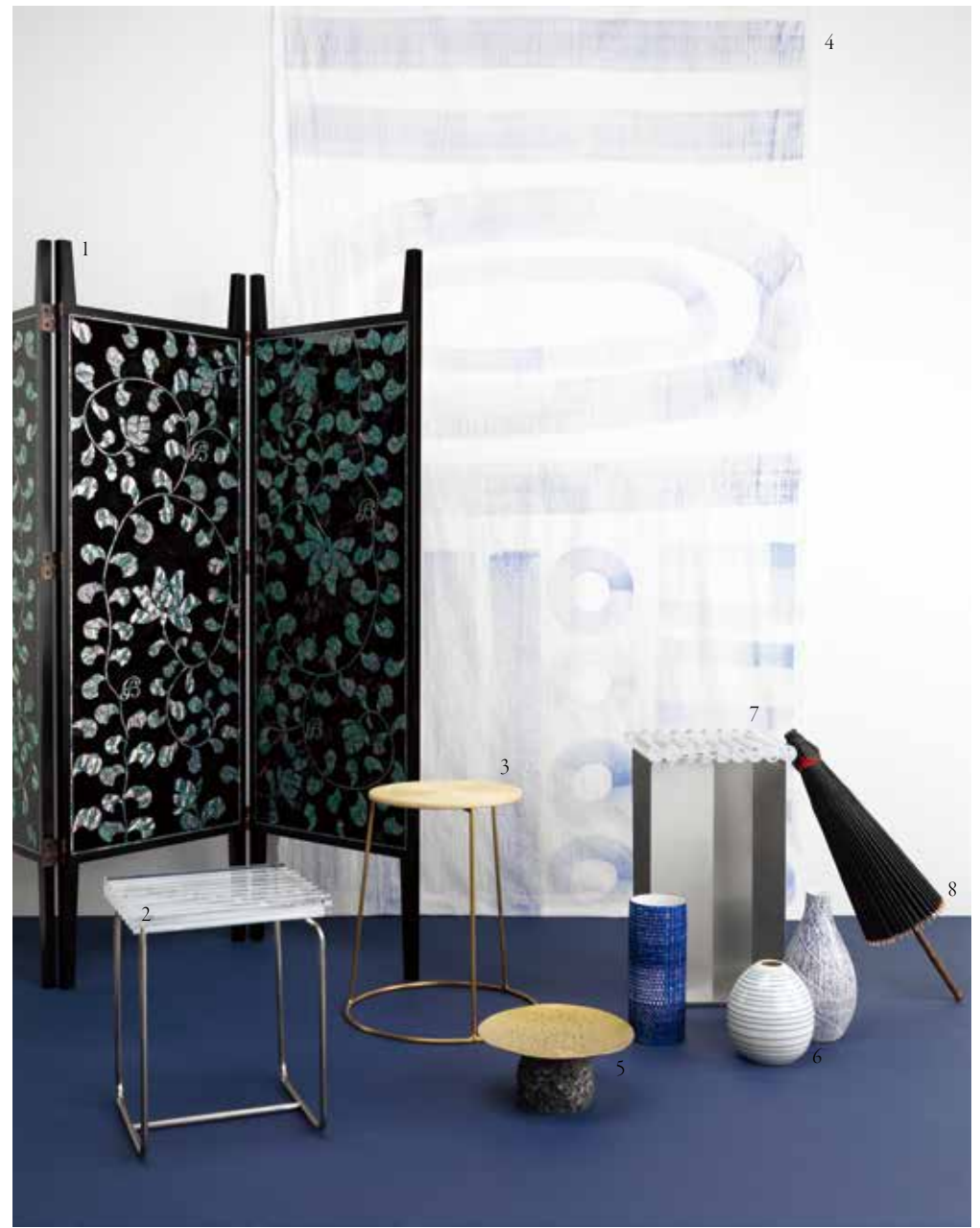
**왼쪽 페이지** 1 모시 원단 족자는 김현수 작가. 2 굽 있는 블루 컬러 볼은 RAAMI by 챔터원. 3 굽 있는 옷칠 접시는 허명옥 작가 by 조은수갤러리. 4 색동 쿠션은 빈칼렉션 by 대한민국명인명장 한수. 5 현무암과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벤치는 서정화 작가. 6 바위를 모티프로 한 쿠션은 필로. 7 하늘빛의 면 베개는 달빛단풍. 8 전통 보료를 모던하게 재해석한 2인 보료는 자주. 9 미색 다관 세트는 김판기 작가 by 에리어플러스. 10 조각보 이불은 달빛단풍. 11 등잔을 재해석한 조명은 자주. 12 짙은 초록색 쿠션은 자주. **오른쪽 페이지** 1 나전모란담초문 병풍은 배광우 작가 by 바다프렌드 청담프렌드타워 전시. 2,7 아크릴과 스테인리스스틸 소재가 혼합된 'Purity Series' 스툴과 테이블은 강지혜 작가. 3 메탈프레임에 화방식 시트를 얹은 'Rush stool'은 서정화 작가. 4 블루 패턴을 핸드프린팅한 패브릭은 'Summer days in blue' by 서윤정회사. 5 황동과 포천석으로 제작한 '센터피스 송송이'는 허대준. 안이환 두석장 by 예울. 6 블루 톤의 화병은 모두 마요. 8 검정색 지우산은 윤규상 작가 by KCDF갤러리숍.



\* 트라이드 앤 투루 블루 컬러 패브릭은 DEIBRO로 디자인하고 노원점

### 정갈하게 누리는 여름날의 호사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참외가 익는 한여름에 지인들과 모여 풍류 모임을 즐겼다. 대지리를 깔고 바둑을 두거나 비 오는 날 시를 짓고, 달 밝은 밤이면 발을 물에 담그는 탁족 등은 한가로운 피서법이다. 더울수록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려 기운이 빠지지 않게 하고, 자기 전 시원하고 깨끗하게 씻어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한 지혜가 담겼다. 옛 어른들이 그랬던 것처럼 차분하고 정갈한 여름의 운치를 집 안에서 만끽해보자.



## 바람의 말이 머무는 풍경

무더운 여름날 바람 한 점은 그리운 이를 만난 것만큼이나 소중한 귀하다.  
단정한 처마 아래 앉았노라면 태백산맥을 휘달려온 바람이 머무르며 쉬어 가길 권하는 아원 고택.  
그곳에서는 250년을 관통한 시간과 현재의 예술, 우뚝한 자연이 어우러져 연모할 수밖에 없는 풍경을 그려낸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 멈춰서 휘파람 불기 좋은 곳

가속도가 붙은 호흡을 고르며 속도를 줄이게 되는 여름이다.  
완주에 위치한 아원 고택이 선사하는 풍경과 함께 가쁜 숨을 고르고 가벼운 휘파람을 불어보자.  
과거의 한옥과 현대의 콘크리트 건축물의 조화가 마음의 격동을 쓰다듬어주고, 압도적인 중남산은 겸손을 지니고 실라 한다.  
그저 근사한 휴가가 아닌 멈춰 서서 돌아보는 힘을 주는 비밀 같은 '우리의 정원'이 바로 그곳이다.



## 화사하게 피어나 생기를 머금다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원한다면 설화수의 새로운 메이크업 제품인 쉬어 래스팅 젤 쿠션과 쉬어 래스팅 파운데이션에 주목하자. 아미노산과 미네랄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품은 산자나무 열매 추출물을 담아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생기를 채운다. 쉬어 래스팅 젤 쿠션은 원래 자신의 피부인 듯 자연스러운 표현을 위한 방법을 찾았다. 피부 온도에 반응해 영양 성분을 흡수시키는 멜팅 젤 텍스처와 촘촘한 마이크로 망, 얼굴의 미세한 굴곡까지 채우는 3D 퍼프가 만나 뭉침 없이 산뜻하고 보송한 피부로 표현해준다. 쉬어 래스팅 파운데이션은 쉬어 하이dra 포몰러 기술 덕분에 부드럽고 얇은 베이스로 피부를 화사하게 밝히고 시원한 수분감을 느낄 수 있어 여름 메이크업에 제격이다. 색소 또한 피부 친화적인 성분으로 코팅되어 피부 본연의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피운다. 쉬어 래스팅 젤 쿠션(SPF 35 / PA++) 5만8000원대, 쉬어 래스팅 파운데이션(SPF 25 / PA++) 5만8000원대

## 나날이 새롭게 채워지는 활력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설화수의 지혜가 돋보이는 예생본앰플. 설화수의 시그니처 원료인 인삼을 천삼화 기술\*로 가공하여 유효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한 '천삼화 홍삼'으로 재탄생시켜 고스란히 담았다. 천삼화 홍삼은 면역력 증진과 피로 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을 도와줄 수 있고, 기억력 개선과 항산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다. 여기에 인삼의 일생 중 단 한번, 4년을 기다린 후에야 얻을 수 있는 귀한 인삼 열매를 정성껏 추출한 진생베리® 추출물을 부원료로 더했다. 예생본앰플은 1일 1회 직접 섭취하거나 기호에 따라 냉·온수에 타서 섭취한다. 기능성 원료인 홍삼을 아낌없이 담은 예생본앰플과 함께라면 생기를 잃기 쉬운 여름날에도 새로운 활력으로 충전하다. 예생본앰플 20g×30개, 17만원대  
\*천삼화 기술: 인삼의 유효 성분을 고압에서 효과적으로 추출하는 제조 방법



##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한 그릇

여름날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시원한 디저트를 우리 그릇에 담았다.  
차가운 온도를 유지해주는 유기, 식중독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옷칠 접시, 단아한 백자 등 아름답고 기능적인  
우리 그릇과 어우러진 시원한 디저트는 땀별 무더위 속에서 감미로운 순간을 선물한다.

요리&스타일링 김보선(로쏘 스튜디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백자 화병은 김연지 작가, 굽접시는  
이정미 작가, 흑색 술병은 이능호 작가  
작품으로 모두 조은숙갤러리.

푸른 도자기에 담긴

쌀 아이스바

### 재료

(백미 아이스바) 백미 1/4컵, 물 100ml, 우유 350ml, 바닐라 엑스트랙 2작은술, 설탕 50g, 소금 약간  
(흑미 아이스바) 3:1 비율로 섞은 백미와 흑미 1/4컵, 물 100ml, 우유 350ml, 바닐라 엑스트랙 2작은술,  
설탕 50g, 소금 약간

### 만드는 법

1 냄비에 쌀과 물을 넣고 끓여오르면 약한 불에서 주걱으로 저어가며 멍긋히 익힌다. 2 물이 줄어들어  
뽁뽁해지면 우유를 조금씩 부어 가며 20~25분 동안 쌀을 부드럽게 익힌다. 3 바닐라 엑스트랙과 설탕을  
넣고 한소끔 끓인 뒤 불을 끄고 식힌 후 믹서에 넣어 곱게 간다. 4 아이스바 틀에 ㉔을 붓고 스틱을 꽂아  
냉동실에서 5~6시간 동안 단단하게 얼린다.



코발트 색 볼은 이정미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옷칠 접시 위에 꽃피운  
녹차 쌀과자 아이스샌드

**재료**

쌀 빵튀기 8장, 가루 녹차 2큰술, 따뜻한 물 3큰술, 생크림 2집, 설탕 2/3집

**만드는 법**

1 가루 녹차에 따뜻한 물을 조금씩 부어 가며 곱게 간다. 2 불에 차가운 상태의 생크림을 넣고 핸드 믹서로 휘핑한다. 생크림을 떠보아 흐르지 않을 정도의 농도가 되면 설탕과 ①을 넣고 핸드 믹서로 단단하게 휘핑한다. 3 넓은 용기에 ②를 담아 냉동실에서 반나절 이상 얼린다. 중간 중간 스푼으로 고루 섞기를 3차례 반복하여 아이스크림 상태로 만든다. 4 쌀 빵튀기 사이에 ③을 적당량 넣은 뒤 냉동실에서 3시간쯤 얼린다.

옷칠 트레이는 박수이 작가,  
분청 차호는 윤세호 작가 모두  
by 수이57이들리에

단아한 백자가 품은 푸른 여름  
청포도 셔벗

**재료**

청포도 800g, 레몬즙 1/4개 분량, 설탕 2큰술

**만드는 법**

1 청포도 알은 반 갈라 씨를 제거한 다음 믹서에 담고 레몬즙과 설탕을 넣어 곱게 간다.  
2 넓은 용기에 ①을 담아 냉동실에서 얼린다. 3시간 간격으로 꺼내어 내용물을 포크로 긁기를 3회 반복한 뒤 반나절 이상 얼린다.



백자 종지는 이정미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차가운 온도를 유지해주는 유기

### 베리 빙수

#### 재료

(과일청) 오디 · 블루베리 · 산딸기 500g씩, 설탕 500g, 얼음 2컵, 장식용 블루베리 · 산딸기 한 줌씩

#### 만드는 법

1 열소독한 유리병에 오디와 블루베리, 산딸기와 설탕을 쪼개어 담아 채운 다음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둔다. 기쁘썩 주걱을 이용해 밑에 가라앉은 설탕이 다 녹도록 저어주며 과일청을 만든다.

2 믹서나 빙수기로 얼음을 곱게 갈아 유기 볼에 담고 과일청을 듬뿍 끼얹은 뒤, 블루베리와 산딸기로 장식한다.



꽃잎 모양의 유기와 티스푼은  
해빈서울, 백자 화병은 김연지  
작가, 백자 알함은 이정미 작가  
모두 조은숙갤러리.

투박한 흑자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 과일 빙수

#### 재료

(수박 얼음) 수박 1/4개, 레몬 즙 1/3개 분량 (토픽) 수박 1/8개, 멜론 1/4개, 파파야 1/2개, 연유 4큰술

#### 만드는 법

1 씨를 제거한 수박 과육을 믹서에 곱게 간 뒤 얼음 틀에 담아 얼린다. 2 토픽용 수박과 멜론, 파파야는 화채 스푼으로 파내어 동그란 모양을 만든다. 3 수박 얼음을 빙수기에서 갈아 흑유 그릇에 담고 토픽용 과일을 얹은 뒤 연유를 뿌린다.



흑자 밥공기는 이능호 작가 by  
조은숙아트갤러리, 초록색 숟철  
옷칠메트는 허명욱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 낮선 도심에서 보내는 이 아름다운 여름

### Berlin & Paris

베를린 & 파리

금쪽같은 여름휴가를 이번엔 좀 특별하게 보내고 싶다면? '산이나, 바다나' 하는 고전적인 선택지를 잠시 내려놓고, 전혀 낯선 나라의 도심 한복판을 활보해보는 건 어떨까. 많은 이가 휴양지로 떠나 한적한 시내를 유유자적 걸으면, 발길 닿는 곳 모두 내가 주인이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셔터스톡





베를린의 여름은 서늘하고 습도가 낮아 여행하기에 무척 쾌적하다.  
도시를 관통하는 슈프레강의 바데쉬프는 미처 도시를 벗어나지 못한 베를리너들의 작은 휴양지다.



복잡다단한 도심의 한복판에서 여름휴가를 보낸다는 것은 생각보다 멋진 일이다.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완벽하게 갖춰진 인프라를 누리며 쾌적한 여유와 문화적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놓칠 수 없는 매력이므로, 여름휴가를 위한 도시를 고른다면 베를린은 무척 흥미로운 선택이 될 것이다.

베를린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던 분단의 아픈 역사를 딛고 고전적인 건축물과 함께 예술과 문화가 빛나는 도시로 변신했다. 베를린 대성당, 홀로코스트 추도비, 전승 기념탑, 붉은 시청사 등의 시내 주요 관광지에는 굵직한 역사의 발자취와 그 의미를 잊지 않고자 하는 의지가 스며 있다.

베를린 중심을 관통하며 남동에서 북서로 흐르는 슈프레강을 따라 유람선을 타면 이 도시의 주요한 시가지들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다. 슈프

It is actually great to spend your summer vacation in the heart of a busy city. It is nice to go out to see beautiful nature, but it is also wonderful to take advantage of the perfect infrastructure that provides leisure and cultural pleasure. If you want to pick a city for this summer vacation, Berlin would be a very interesting choice. Berlin has overcome the tragic history of division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as it has been transformed into a city of sparkling art and culture blended with classical architecture. The main attractions in the city, including the Berliner Dom, the Holocaust Memorial, the Victory Tower, and the red City Hall building, are reflections of the city's determination to remember the meaning of its history. If you ride a ferry along the Spree River that flows from

레 강가에 자리 잡고 있는 초대형 수영장 바데쉬프(Badeschiff)는 베를리너들이 즐겨 여름날을 보내는 특별한 공간이다. 과거 강을 통과하던 화물선을 위한 컨테이너를 개조해 만든 이곳은 2004년부터 개장해 베를린 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명물 수영장이 되었다. 자연스럽게 조성된 인공 모래사장에는 선 베드에 누워 일광욕을 하는 사람들로 휴가철 해변의 분위기를 더한다.

강물과 수면을 맞춰 풀장 안에서 마치 강을 헤엄치는 듯한 기분도 든다. 풀 사이드 바에 기대어 탁 트인 베를린 시내를 조망하다가 어느덧 밤이 되면 신나는 음악 공연을 즐긴다. 여름 내내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아름다운 슈프레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한여름의 바데쉬프는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하다. 바다가 가까이 없어도, 먼 시골로 떠나오지 않아도 완벽한 휴가가 완성된다.

the southeast to the northwest through the center of Berlin, you could see the major destinations in the city at a glance. Badeschiff in Berlin, a super-sized swimming pool by the Spree River, is a special spot where many Berliners spend their summer. It was built after renovating the containers of a cargo ship that used to travel up and down the river, and it has been the most beloved swimming pool since 2004. The natural-looking, artificial sand beach is full of people enjoying the sun on sun beds. The pool is leveled along the river, so it feels as if you are swimming in the river. Lean by the pool-side bar to see the open view of Berlin in the day, and enjoy exciting concerts at night. Badeschiff in the middle of the summer is delightful with the night view of the beautiful Spree River. It is a



파리의 여름을 상징하는 이벤트로 성장한 파리 플라주. 일상적인 공간에 꾸러지는 비일상적인 해변의 풍경이 여행자에게도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한편 파리 한가운데에서도 해변의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다. 여름 휴가 기간인 7월에서 8월, 센 강변에는 인공 해변이 마련되는데 이를 '파리 플라주(Paris Plage)'라 한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미처 여름휴가를 떠나지 못한 시민과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는 휴가철에 이곳을 방문한 여행객을 위한 파리의 대표적인 여름 이벤트다. 2002년 시작된 이후 파리 시민들의 큰 애정을 받으며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가 다니던 도로를 따라 5000톤 이상의 모래가 깔리고 야자수와 파라솔을 비치해 열대의 해변을 재현했다. 파리지역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도심 가운데서 일광욕을 하며 여름을 즐기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또한 연극이나 음악회, 영화 상영회 등 행사는 물론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임시 도서관도 운영되어 휴양지 못지않은 여유를 한껏 누릴 수 있다. 한편, 파리 시내에서도 여름 내내 축제가 이어진다. 특히 베르사유 정원의 야간 분수 축제는 찬란한 색감의 분수와 불꽃이 바로크 음악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밤을 만들어낸다. 한밤의 로맨틱한 베르사유 정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S

perfect vacation destination though there is no sea nearby, and you are not in the countryside. You could also enjoy the sentiments of spending time in a beach in the heart of Paris. In July and August, Paris creates an artificial beach by the Seine River called 'Paris-Plages.' This is Paris's biggest summer event for Parisians who cannot go on a vacation for some reason, and tourists who come to Paris during the vacation season when most shops are closed. It has been loved by the people of Paris since 2002, and has grown in size every year. Over 5,000 tons of sand covers the road, and the tropical beach is complete with palm trees and parasols. Parisians and tourists from all around the world enjoy the sun in the heart of the city every summer. A temporary library is open at no charge, so it feels just like a resort. Paris has an unending chain of festivals throughout the summer. There is a fantastic night fountain festival at the Garden of Versailles that features a colorful water fountain and fireworks choreographed to Baroque music.

## 마르지 않는 촉촉함이 깊이 스미다

강한 자외선과 건조한 에어컨 바람에 수분을 빼앗기는 여름철에는 피부 균형이 깨지기 쉽다.  
메마른 피부를 촉촉하게 적시는 수율 라인으로 지친 피부를 쉬게 하자. 더없이 건강한 생기가 온전히 배어든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 수율크림 Hydro-Aid Moisturizing Soothing Cream

여름의 뜨거운 열기는 피부 온도를 올려 쉽게 지치게 한다. 즉각적인 수분 공급으로 피부를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자작나무 수액과 맥문동, 새싹삼 등 피부를 청량하게 적시는 성분이 담긴 수율크림이 오래도록 촉촉한 피부로 다스린다. 단순한 수분 공급이 아닌 피부 깊숙이 수분을 채우는 근본적인 보습 케어가 가능하다. **How to Use** 적당량을 덜어내어 피부 결을 따라 부드럽게 펴 발라준다. 파운데이션 등 메이크업 제품과 섞어서 사용하면 촉촉한 수분광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고, 밤에는 도톰하게 발라 수분 진정 수면 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냉장고에 보관 후 사용하면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피부를 진정시킨다.

\*오른쪽의 대용량(75ml) 제품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여름 시즌 한정 판매한다.



물의 퍼짐을 형상화한 원형  
도자기 오브제 파동은 오유리 작가.

수율선플루이드  
Hydro-Aid Moisturizing Soothing UV Protection Fluid

자외선을 차단하는 동시에 설화수의 수분 비법으로 건강한 피부 바탕을 만들어주는 수분 선플루이드. 스킨케어 제품처럼 가볍고 신뜻하게 마무리되어 자주 덧발라도 밀리지 않고 자연스럽다. 오래 유지되는 수분감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 **How to Use** 아침 손질 시 기초 손질 마지막 단계에서 적당량을 덜어 부드럽게 발라준다.



물의 유기적 형태를 표현한 도자기  
플레이트는 안혜현 작가

수율미스트  
Hydro-Aid Moisturizing Soothing Mist

더위에 스트레스를 받은 피부에는 수율미스트가 평온함을 선사한다. 자작나무 수액과 맥문동, 새싹삼으로 구성된 보습 성분이 미세한 입자로 피부에 스며들어 지친 피부를 달랜다. 뿌리는 즉시 청량한 수분을 채워 달궈진 피부를 식히고 숲속을 거니는 듯한 상쾌한 향기로 피부는 물론 마음의 휴식을 제공한다. **How to Use** 얼굴에서 20cm 정도 떨어져 눈을 감은 채 얼굴 전체에 가볍게 뿌려준다. 종일 수시로 사용한다.



하늘색 실린더 작업 '物-Horizon'  
(Glazed Ceramic)은 권나리 작가.  
파란 하늘을 표현한 유화 페인팅 작업  
'物-Sky'(Oil on Canvas)는 권나리 작가.

파란 하늘을 표현한 유화 페인팅 작업  
 '物 - Sky'(Oil on Canvas)는 권나리 작가.  
 물의 퍼짐을 형상화한 백자 원형 오브제  
 '파동'은 오유리 작가.



**수올라인** 피약별이 다가온 여름에는 달아오른 피부의 열기를 식혀줄 소방수가 필요하다. 폭염 속에서 피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유수분의 조화와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설화수는 수분을 담뿍 채워 피부를 진정시키는 비법을 담은 수올라인을 통해 시원하고 촉촉한 여름 피부 관리를 제안한다. 수올라인의 공통 성분인 맥문동과 자작나무 수액, 새싹삼이 피부 깊숙이 닿는 수분길을 만드는데, 예로부터 해갈에 탁월하다고 알려진 맥문동으로 수분을 보충해 피부열을 내린다. 해독과 보습력이 뛰어나 세포부터 촉촉하게 보습하는 자작나무 수액은 지친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까지 있다. 새싹삼은 피부 속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가둬 피부의 수분 장벽을 강화한다. 피부에 청량한 휴식을 선사하는 수올라인은 진정 효과와 수분 지속력이 뛰어난 수올크림과 자외선 차단은 물론 수분광 메이크업까지 가능한 수올선펠루이드, 언제 어디서나 즉각적으로 수분을 채워주는 수올미스트로 구성된다. 특히 수분량이 부족한 20~30대 연령의 피부에 적합한 수분 트리트먼트로 마르지 않는 샘을 피부에 선물한다. S

**Hydro-Aid Line** When the sun is blazing in the summer, you will need a fire hydrant to cool off your skin. The way to keep your skin healthy amid the heat is supplying sufficient moisture to maintain the harmony and balance of oil and moisture. Sulwhasoo suggests a cooling and moisturizing summer skincare regimen with Hydro-Aid Line that replenishes the skin with soothing moisture. The common ingredients of Liriope Platyphylla, Birch Sap, and Ginseng Sprouts deliver hydration deeply into the skin. Liriope Platyphylla, which is known to be effective in quenching thirst, supplements moisture to lower the skin's heat, while Birch Sap moisturizes skin cells with exceptional detoxification and hydration to soothe tired complexion. Ginseng Sprouts trap the moisture in the skin to strengthen the moisturizing barrier. Hydro-Aid Line consists of Hydro-Aid Moisturizing Soothing Cream which provides cooling effect and long-lasting moisture, Hydro-Aid Moisturizing Soothing UV Protection Fluid as sunscreen and makeup base with moisture radiance, and Hydro-Aid Moisturizing Soothing Mist as instant replenishment of moisture anytime, anywhere. It is the moisturizing treatment line for people in their 20s and 30s who need the gift of endless hydration to the skin.



## 오감을 일깨우는 향기,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티 클래스 Sulwhasoo Flagship Store Tea Class - The Fragrance that Awakens the Five Senses

바쁜 일상 속에서 향기로운 차 한 잔이 전하는 여유는 그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한다. 잠시 릴랙스가 필요할 때,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의 홀리스틱 티 클래스에서 설화수의 미학이 집약된 네 가지 티 컬렉션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에디터 민소연 사진 오희원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진행하고 있는 티 클래스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가득한 공간에서 설화수가 엄선한 네 가지 향의 티 컬렉션과 다도의 즐거움을 누리볼 수 있다.

아시아의 지혜를 오롯이 담아낸 각종 뷰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는 맑고 편안한 기운으로, 진정한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홀리스틱 티 클래스'다. 차 한 잔이 선사하는 깊은 감성으로 몸과 마음의 안정과 편안함을 오감으로 체험하게 하는 홀리스틱 티 클래스는, 설화수 티 컬렉션을 고객에게 선보이는 특별한 자리다. 네 가지 설화수 티 컬렉션을 구성하는 첫잎을 직접 보고 향기 맡으며 다도의 절차를 따라 그 맛을 음미해본다. 또한 다도 시범을 본 후 본인이 마음에 드는 차를 골라 직접 내리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설화수 티 컬렉션은 설화수의 미학과 아모레퍼시픽의 녹차 브랜드 오설록의 노하우가 협업한 결과물로 몸과 마음에 자연의 숨을 불어넣어 준다.

제주 삼나무 통에서 후발효해 귀하게 가공한 홍삼을 블렌딩한 홍삼 발효차, 눈 속에서 피어난 매화의 청초함을 그대로 담아낸 은은한 향기가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매화차, 봄기운 완연한 제주 설록 다원의 어린 첫잎을 골라 감미로운 풍미를 자랑하는 세작, 제주 삼나무의 깊은 향이 깃든 후발효 첫잎과 상큼한 영귤이 만나 싱그러움을 더한 삼다연 제주영귤 등 네 가지 건강하고 매력적인 선택이 우리를 기다린다. 홀리스틱 티 클래스는 매주 화·수·목·금, 오후 1시 30분에 진행하며 설화수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면 최대 10인까지 참여할 수 있다. S

Offering various beauty services that represent Asia's wisdom, Sulwhasoo Flagship Store has a special program that allows you to confront your true self with clear and rejuvenating energy. It is called 'The Holistic Tea Class.' In the class, you could appreciate the tea leaves that compose the four tea collections of Sulwhasoo by tasting the tea in the way of tradition. After watching a demonstration of tea ceremony, you could choose your favorite flavors, and brew them yourself. Sulwhasoo Tea Collections are the outcomes of Sulwhasoo's aesthetics and Osulloc's knowhow, spreading the spirit of nature to the body and mind. Four healthy and attractive selections are available: Red Ginseng Blended Tea fermented in Jeju's cedar barrels and blended with precious red ginseng, Plum Blossom Herb Tea that relaxes the body and mind with the subtle scent of pure plum blossoms blooming in the winter, Sejak Green Tea made with the youngest tea leaves from Jeju Tea Field in the spring, and Samdayeon Jeju Tangerine Blended Tea infused with the freshness of tangy tangerines after the tea leaves were fermented in the enriching cedar barrels of Jeju. The Holistic Tea Class is held every Tuesday, Wednesday, Thursday and Friday at 1:30 PM and up to 10 people is welcome to participate by making reservations at the Sulwhasoo homepage.

## 싱그럽게 스민 설화수의 여름은 풍성하다

### 중국에 전하는 설화수 美의 근원

설화수 고유 원료인 자음단™을 담아 피부 균형을 맞추는 윤조마스크의 중국 출시 기념 행사가 상해에서 열렸다. 설화수의 브랜드 뮤즈 송혜교가 상해 IFC 몰 설화수 매장을 방문해 설화수 제품을 체험하는 것을 시작으로 직접 브랜드의 철학과 윤조에센스의 뷰티 루틴을 소개하며 수많은 팬과 미디어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한 장 사용만으로도 최적의 피부 결을 선사하는 윤조마스크를 비롯해 설화수의 홀리 스틱 뷰티를 전하고 중국에서의 높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뜻깊은 자리로 평가받았다.



### 바르고 편하게 닦고, 순하게 다스린다

물 없이도 최적의 클렌징 효과를 선사하는 순행클렌징워터가 지난 4월 출시된 이후 여름을 맞아 대용량 제품을 선보인다. 부평초, 진피, 의이인, 율피 추출물의 복합체인 순행청은수™ 성분으로 피부의 수분력을 강화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해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준다. 순행클렌징워터는 '트리플미셀라 기술'이 적용되어 피부 노폐물은 물론 포인트 메이크업까지 효과적으로 지워준다. 세안이 잦아지는 여름 시즌 한정판으로 출시되는 대용량 제품은 전국 백화점 및 면세점의 경우 7월, 방문 판매는 8월 중순에 만날 수 있다. 순행클렌징워터 200ml 3만8000원대, 400ml 6만3000원



### 자작나무 수분의 힘을 더 풍성하게 담다

설화수는 촉촉한 수분 성분으로 외부 자극으로부터 지친 피부를 평온하게 다스리는 수유크림의 대용량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인다. 수유크림은 자작나무에서 추출한 수액 성분이 뜨거운 열기에 달아오른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키고, 보습 원료인 맥문동, 새싹삼 성분이 수분 대사를 원활하게 해준다. 또한 피부가 수분을 머금고 있는 시간을 오래 지속시키는 수유크림은 대용량 출시로 수분 효과를 더 든든하게 누릴 수 있다. 부드럽고 가벼운 제형과 상쾌한 향은 여름 피부를 청량하고 시원하게 지켜준다. 수유크림 50ml 9만 원대, 75ml 11만 원



### 속부터 아름답게 가꾸는 홀리 스틱 케어

설화수는 안과 밖을 모두 다스려 진정한 홀리 스틱 뷰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천삼화 홍삼을 담은 예생본앰플을 출시한다. 이 제품은 천삼화 홍삼이 들어 있어 피로 개선과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4년에 한 번 밖에 얻지 못하는 진생베리 성분을 더해 몸에 활력을 채운다. 속부터 건강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홍삼을 아보레퍼시픽의 초고압 인삼 가공 기술인 '천삼화'로 가공해 인삼의 유효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생본앰플 20g×30개, 17만 원대



# Sulwhasoo

雪花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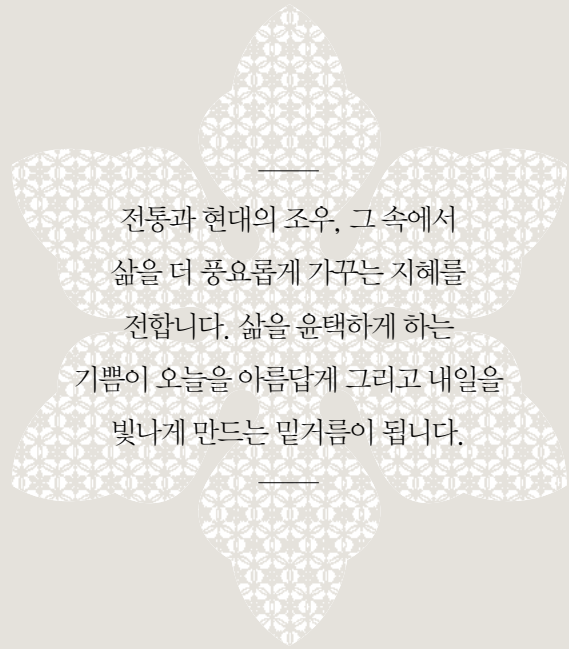
## 피부피로를 다스리는 매화의 힘으로 더 탄탄해진 생기를 누리다

### 설화수 설링크림

아무리 건강한 피부라도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피부피로를 관리하지 못하면 피부 노화로 이어집니다. 매일매일 지치지 않는 피부 생기로 차오르는 설화수 설링크림 강력한 항산화에너지를 함유한 매화성분이 피부 피로를 다스리고 건강한 탄력과 생기를 깨워 눈부신 피부를 선사합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우, 그 속에서  
삶을 더 풍요롭게 가꾸는 지혜를  
전합니다. 삶을 운택하게 하는  
기쁨이 오늘을 아름답게 그리고 내일을  
빛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한글



## 다름을 모아 이룬 하나의 아름다움

조각보 향낭 모빌 만들기

갓가지 색깔의 자투리 천을 모아서 만든 조각보를 바라본다. 하찮다고 여겨진 작은 존재에도 굉장한 가능성이 숨어 있다는, 알지만 자주 잊고 마는 가르침을 일깨운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이종근, 오희원 도움주신 곳 갤러리 미르

### 버리는 조각이 모여 예술이 되다

옛 여인네가 해야 하는 살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는 가족들의 옷을 짓기 위해 하는 바느질이었다. 물자가 부족했던 서민층은 옷을 짓다 남은 자투리 색색의 천 조각을 모아 이어 새롭게 하나의 천을 만들었는데, 이를 '조각보'라 한다. 쓰다 남은 천 조각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으려는 여인들의 지혜는 색다른 미감을 지닌 또 하나의 예술을 창조해냈다. 특히 현대에 이르러 조각보는 독립된 조형물로서 그 세련된 구성과 색깔의 배치가 지닌 미적 가치가 재발견되고 인정받고 있다.

유물로 발견되는 조각보의 상당수는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다. 어머니에서 어머니, 딸에게서 딸로 대대로 전해지며, 사용하기보다는 장롱 깊숙한 곳에 고이 모셔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는 조각보가 특별한 실용 목적으로 제작되었기보다 만들 자체의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한다. 구상에 맞는 형태의 조각을 모아서 그것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통합하여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과정은 예술과 다름없다. 그러한 순수 창작의 기쁨은 폐쇄된 사회 안에서 여성

들이 느꼈던 억압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주지 않았을까.

또한 조각보 제작은 그 자체에 복을 기원하는 의미도 들어 있다. 조각으로 만든 보자기는 복을 싸둔다는 뜻에서 이름이 나왔을 만큼 복의 개념과 관계가 있으니 말이다. 공을 많이 쏟아부어야 하는 조각보를 만드는 것은 정성을 들여 기도하는 것과 비슷했을 것이다. 한 땀 한 땀 누군가를 위한 염원과 사랑이 같이 새겨진다. 어렵게 완성한 조각보는 소중한 이에게 선물로 주거나 대대로 물려지는 게 당연하다.

조각보는 서양의 퀼트와 비슷한 점이 많다. 하지만 우리의 규방공예에서는 흠질이 아닌 감침질을 주로 하는 것이 다르다. 조각보를 만들 때에도 감침질을 하는데 천 조각을 다른 조각과 촘촘하게 이어 견고하고 세밀한 느낌을 준다. 한편 조각보에 주로 사용하는 직물은 각종 견직물과 모시 등으로 대부분 같은 종류로 조합한다. 얇은 견직물은 얇은 견직물과, 모시는 모시와, 비단은 비단끼리 서로 섞여 이어진다. 얇은 견직물과 모시 종류는 대부분 홀보로 여름에 사용되며 두터운 비단 종류는 겨울에 쓰인다.

홀보는 안감을 대지 않기 때문에 천 조각을 이어 붙일 때엔 솔기 부분의 올이 풀리지 않도록 이중으로 흠질을 해서 솔기를 감싼다. 이때 두



### 조각보 향낭 모빌 만들기

**준비물** 조각 원단(옥사, 모시) 실, 바늘, 가위, 자, 헤라

#### 만드는 방법

- 1 준비한 조각 원단을 색의 조화를 생각하며 배치해 직사각형 꼰로 만든다.
- 2 각 조각마다 여유분(시접) 5mm 선을 헤라로 표시해 접어준다.
- 3 각 조각을 시접이 안으로 가게 맞대고 시침핀으로 고정한다 다음 감침질한다. 전부 연결한 뒤 중앙에 완성선을 그려주고, 빈을 접어 양옆을 감침질한다.
- 4 윗부분은 양옆 감침질한 부분이 중앙으로 오게 맞대고 접어 가운데 빈 공간에 포푸리를 넣은 뒤 감침질하여 봉한다.
- 5 삼각형 꼭짓점 부분에 실을 매달아 완성한 향낭을 두세 개씩 연결해 완성한다.

**갤러리 노트** 옛 여인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규방공예, 보자기, 섬유 등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갤러리 검 공방이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길 40 1층 / 02-733-6881)



번째 흡질한 자국이 아무래도 드러나게 되는데, 이를 역으로 도드라지는 색실을 써서 강조함으로써 보자기 전면에 바느질의 꺾적을 장식적인 요소로 승화시킨다. 겹보는 접혀 들어간 시접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양쪽으로 꺾은 다음 천의 겉면에서 감침질한다. 이때 역시 눈에 띄는 색실로 감친 흔적을 보여주는데, 홀보와는 달리 바느질 자국을 보일 듯 말 듯 드러낸다.

현존하는 조각보의 직물은 거의 기계직으로, 우리나라에서 기계직 직물이 흔히 쓰인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였다.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옛 조각보는 거의 그 이후에 제작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조각보는 주로 보자기의 용도, 즉 무언가를 싸거나 덮는 데 주로 쓰이며 크기에 따라 받침보, 덮개보, 노리개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받침보나 덮개보는 패물, 바느질 도구 등 여성의 자잘한 소품을 담은 상자 밑바닥에 깔거나 넣어둔 물건을 덮는 데 썼다. 이때 상자가 작기 때문에 더욱세밀하고 정교한 디자인이 된다. 노리개보 역시 1폭 정도로 작는데 노리개나 패물 등으로 싸기 위해 겹보로 꾸민 것이 많다. 한쪽 끝에 끈을 달아 돌돌 감아 묶을 수도 있다. 한편 상보는 2폭 정도의 크기가 대부분이다. 상보에는 모두 꼭지가 달려 있고 식지를 양쪽에 뒀다. 여름 상보는 얇은 견직물이나 모시로, 겨울용은 두꺼운 견직물로 만든다. 결혼

할 때 신부가 상보를 만들어 가는 것도 통상적인 관습이었다. 조각보의 패턴은 매우 다양한데 조각 천 자체의 모양이 정사각이거나 삼각형 두 개, 네 개가 모여 정사각형을 이룬 것이 질서정연하게 결합되어 있는 규칙적인 형태가 있고, 보자기 중앙부의 네모꼴을 중심으로 동심원의 형태로 조각이 점점 확대되는 형태가 있다. 하지만 일정한 패턴이 아닌 자유분방한 결합이 주는 아름다움이 조각보를 대표하는 매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만드는 재미로 빠져드는 조각보 소품

바느질 초심자가 처음부터 조각보에 도전하기는 부담스럽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그래서 조각 천을 이용한 향낭을 만들어보았다. 색 고운 옥사 조각을 이어 붙여 긴 직사각형을 만든 다음, 반으로 접어 삼각 모양이 되게 감침질해 입체 형태를 만든다. 입구를 봉하기 전에 포푸리나 허브 등을 넣으면 향이 은은한 향낭이 된다. 조각이 성긴 옥사나 모시는 공기가 잘 통해 향낭에 알맞다. 알록달록한 향낭을 완성하면 나뭇가지에 매달아 창가에 걸어둔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살랑이며 좋은 향기를 낸다. S

# 마음을 씻는 상서로운 향기 The Auspicious Fragrance to Cleanse Your Mind

향은 인류의 오랜 역사와 함께한다. 악취를 없애고 부정한 기운을 물리치는 좋은 향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귀하게 여겨, 그것을 담는 그릇 역시 아름답게 장식하고 소중히 다루었다.

에디터 민소연 도움 주신 곳 국립중앙박물관, 크래프트 콤바인

향이란 몸에서 나는 나쁜 냄새, 정결해야 하는 공간의 부정한 기운을 없애는 '향기가 나는 물건'이다. 불교에서 향을 많이 쓰는 것 역시, 향이 마음의 때까지 깨끗하게 해준다는 믿음 때문이다.

향을 사용하는 방법은 도향塗香과 소향燒香 두 가지가 있다. 도향은 명향名香 가루를 깨끗한 물에 섞어 몸에 바르는 것이고, 소향이란 향을 불살라서 그 연기를 쬐는 것이다. 소향의 방법으로 향을 내려면 반드시 그릇이 필요한데 이를 '향로'라 한다.

부처에게 향을 공양할 때 사용하던 향로는 불교의 발원지인 인도에서 비롯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불구佛具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불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삼국시대 이후 수많은 사찰에서 향으로 공양했을 것이라 예상되나,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때 몇 점만이 남아 정확한 형태의 특성은 파악하기 쉽지 않다. 고려시대에는 주로 청자와 청동제 향로가 많이 제작되었고, 조선시대 이후에는 불교식 향로보다 일반 제기祭器로서 백자와 유리 소재가 애용됐다.

이 청자 향로는 고려시대 것으로 둥근 바리데 형상의 몸통에 세 개의 다리가 달려 있다. 입구는 구멍이 뚫린 네모 형태의 고리를 마주 붙이고 입 부분을 각진 테두리 모양으로 돌렸다. 몸체는 양각으로 도철 문양을 넣었는데, 도깨비를 추상화해 악귀를 물리치는 기원을 담았다.

한편 크래프트 콤바인의 인센스 버너는 전통 향로에 비견할 만한 기능을 하는 현대적 감각의 작품으로, 향을 피우고 연소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투명한 유리로 제작했다. S

Incense is 'a fragrant object' that deodorizes your body and removes any bad energy in a space that must be kept clean. Incense is also widely used in Buddhism because it is believed that incense can even cleanse your mind. You can use one of two kinds of incense: the topical kind and the burning kind. The topical kind is a powder of renowned incense mixed with clean water that can be applied onto your body, while the burning kind is literally burned to emit smoke. When you use the burning essence, you must have a vessel called the 'incense burner.' It is assumed that many temples in Korea used incense for worshipping after the Age of Three Empires. But it is not easy to identify accurate characteristics or shapes as only a few mount-shaped and bottle-shaped incense burners from the Age of Three Empires and Silla Unification remain today. In the Goryeo Dynasty, there were mostly celadon and bronze incense burners. After the Joseon Dynasty, white porcelain and brass were used as ordinary ritual tools. This celadon incense burner was introduced in the Goryeo Dynasty, and it has three legs on a round bowl. At the top, there are two square rings placed next to each other. The body is embossed on the pattern of Taotie, while the abstract figure of a goblin represents the wish to drive away bad spirits. Meanwhile, Craft Combine's incense burner is a modern piece of artwork that is as functional as traditional incense burners. It is made with clear glass, so you can see how the incense is burned.



청자 양각 도철 무늬 향로, 고려시대



Glass Incense Burner L, 크래프트 콤바인



보석 디자이너로 활동했던 채림 작가는 자개와 옷칠이 내는 오묘하고 신비로운 빛에 매혹되었다.  
이 작품은 신선한 옷칠 색감이 돋보이는 <복숭아꽃 살구꽃 아가진달래> 시리즈 중 부분

## 옷칠 거울 위 보석 그림자

아티스트 채림

지난겨울, 북촌 학교재 갤러리에서 그의 작품을 처음 만났다.  
'숲의 사색'이라는 이름의 그 전시에 이끌리듯 들어가서다. 언뜻 보면 유화처럼 보이는  
커다란 캔버스에는 신비로운 빛을 내는 자개와 보석이 찬란한 숲을 이루고 있었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박계민

채림 작가의 작품은 섬세한 보석 공예품이면서도 순수 예술이고, 입체 조형이면서도 평면 회화의 상상과 미감을 가진다. 장르와 차원을 넘나드는 그의 시도는 특별한 경력에서 비롯되었을 터다. 대학에서 불문학을 전공한 작가는 패션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우연인지 운명인지 모를 흐름으로 결국 보석 디자이너의 길을 걸었고, 보석 디자인에 옷칠과 나전 등 전통 공예 기법을 도입하면서 그 매력에 빠져들어, 그것으로 다시 새로운 예술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제가 미술을 정식으로 공부했거나 특정한 장인의 제자로서 옷칠이나 나전 기법을 전수받았다면, 오히려 어떤 틀에 사로잡혀 지금과 같은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스스로 제 방법을 ‘좌충우돌 기법’이라고 하는데요(웃음). 정제된 장인의 완벽한 솜씨엔 못 미치겠지만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결과를 체험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앞으로도 제 표현 수단은 계속해서 바뀔 거예요. 무엇이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목판에 옷칠 기법으로 색을 바르거나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전통 문양의 자개와 산호, 진주 등의 보석을 결합한 작가의 작품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주목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벨기에, 인도, 대만 등 세계 곳곳의 전시회에서 그의 작품은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뉴욕 아트 엑스포에서 솔로 어워드 수상하고, 영국 사치 갤러리에서

떠오르는 작가로 선정돼 스타트 아트 페어에 참여하기도 했다.  
“동아시아의 공예 기술은 특히 뛰어나지요. 그래서 차이나(China)는 도자기를, 재팬(Japan)은 옷칠을 뜻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지요. 한국 옷칠은 세계 최고의 수준인데, 중국이나 일본 같은 보통명사를 갖지 못한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빠르게 잊히고 계승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아름다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잘 알려지지 않았고요. 우선 먼저 스스로를 알고 그 독창성을 확장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30~40차례 끈적한 옷을 덧칠해 거울처럼 반들한 윤기와 색감을 내고, 세계를 여행하면서 또는 보석 디자인을 하면서 발견한 다양한 영감을 그 위에 재현하는 채림 작가는 꿈을 꾸는 이처럼 보였다.  
일상 속에서도 늘 미지의 영역을, 무엇이 올지 모를 미래를 상상하고 맞서는 열정과 에너지. 그의 작품에서 감지되는 자유로움의 정체를 비로소 깨닫는다. S





〈소금\_빛깔, 맛깔, 때깔〉 전시는 소금의 귀한 구실과 거기에서 영감을 받은 예술가의 다양한 작품을 한 자리에 모았다. 소복하게 쌓인 소금 언덕 위에 영상과 공예, 설치미술이 펼쳐진다.

## 소금의 세 가지 속살

소금은 문명과 뿔 수 없이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발효와 절임이 특징인 우리의 전통 식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명 활동의 근원이자 음식의 맛을 좌우하며, 과거 황금과도 같은 가치를 지녔던 소금의 빛깔과 맛깔, 때깔을 살펴보는 전시가 열렸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오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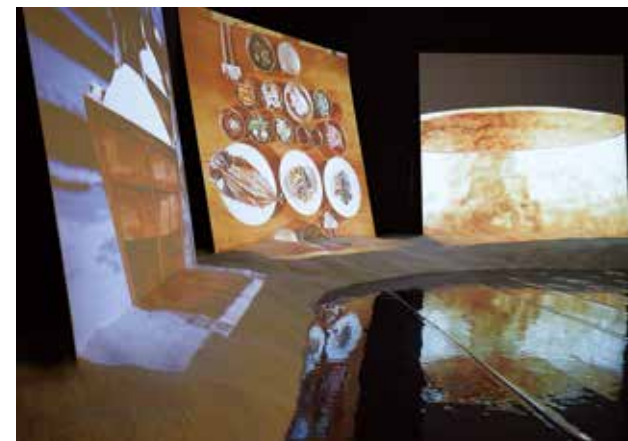
소금의 빛깔, 맛깔, 때깔이라니, 소금의 색은 희고 맛은 짠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그 제목에 먼저 호기심이 인다. 2008 공예 주간을 맞이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국립민속박물관의 공동 주관으로 공예 식문화 특별전 〈소금\_빛깔, 맛깔, 때깔〉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렸다. 국립민속박물관 내 기획전시실Ⅱ와 야외 전시장인 오촌택에서 동시에 열리는 이번 전시의 화두는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소금’이다.

“제상에 소금이 돼라.”는 오랜 가르침은 사실 무척 어려운 일이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묵묵하게 해내는 소금은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순수한 성분이자 맛의 원형이고 다른 것과 섞여 그것을 더 빛내고 맛을 더한다. 그러므로 소금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는 뛰어난 재주와 바른 심성을 모두 갖는 일이다. 이러한 소금의 속성을 24명의 작가가

모여 회화와 사진, 영상과 공예로 풀어냈다.

먼저 실내 기획전 전시장 입구에 놓인 오브제가 시선을 잡아끈다. 자그마한 소반이 벽에 걸리거나, 주르르 몇 개가 붙어 하나의 콘솔이 되어 있다. 그 질박한 나무 위에는 그릇을 채우는 쌀 혹은 소금이 별처럼 빛나며 전시의 테마를 드러낸다. 이 작품을 만든 홍현주 작가는 낡고 오래된 고가구와 민속품에 크리스털이나 광섬유를 장식해 표현한다. 밥상의 상판이나 밥그릇처럼 기능을 암시하는 소재에 작고 반짝이는 효과를 덧붙이고, 여러 소재를 다중적인 시점으로 배치해 독특한 효과를 냈다. 소금을 매개로 우리의 식문화와 공예의 연결 고리를 찾아 낸 것이다.

전시장에 들어서니 전체적으로 바닥에 깔린 하얀 소금에 마치 염전이나 눈밭에 들어온 것 같다. 한눈에 들어오는 아담한 공간에는 갖가지 아름다운 공예 작품과 설치미술, 발달한 색감의 그림과 계속해서 영상이 돌아가는 세 개의 스크린이 오묘조밀 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 전시



〈소금\_빛깔 맛깔 때깔〉  
전시 일정

일시 2018년 5월 1일~8월 19일  
장소 국립민속박물관 야외 전시장  
오촌댁  
문의 www.nfm.go.kr / 02-3704-3114

자연에서 생겨난 소금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많은 과정과 숙련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요리나 공예도 마찬가지다. 인간이 오랫동안 이루어온 문화 역시 그렇다.

는 세 가지 섹션으로 나뉜다. 먼저 '빛깔'에서는 소금과 음식, 공예를 만드는 인간의 손에 주목하여 노동을 통해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값진 결과물을 얻는 과정을 섬세하게 담아낸 영상이 펼쳐진다. 동시에 플레이되는 세 영상은 각각 소금이 자연에서 비로소 우리에게 오는 과정, 그 소금으로 김치며 장 등 우리의 전통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장인이 공예품을 손수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소금과 음식, 공예의 연결고리를 자연과 노동, 공동체로 풀어낸 관점이 흥미롭고 인상적이다. 특히 "과학이 근본인 현대 문명이 종교라면, 공예는 인류의 무의식에 해당한다."는 작품 설명의 코멘트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인공지능이 출현한 지금도 인간의 손길이 담긴 음식 한 점, 물건 하나에 더 마음이 끌리는 것은 무의식의 지대한 영향 때문이 아닐까. 전시장 한쪽 작은 방에 들어가서 만난 '맛깔'은 절기에 따라 장 담그기, 생선 염장, 젓갈, 김치 등 발효와 절임으로 대표되는 한국 전통의 식문화 담은 이동춘 사진가의 작품이 가득하다. 작가는 30여 년간 한국

전통의 의식주를 카메라에 담아냈다. 종갓집의 문턱을 닳도록 넘나들며 그들이 손에서 손으로 전수하는 지혜를 포착한 결과가, 결이 살아있는 한지에 고스란히 인화되어 걸렸다. 또 방 한쪽에서는 조선시대부터 전해지는 <규합총서>, <음식다미방>, <산가요록>, <시의전서> 등 옛 조리서의 흔적도 따라가 볼 수 있다. 짭조름하게 맛깔나는 김치 한 보시기가 세대를 잇는 어머니의 손끝에서, 그리고 자연의 순환이 응집된 소금 한 줌의 마법에서 태어남을 새삼 깨닫는다. '때깔'에서는 소금을 재고 담는 기능만이 아니라 그 빛깔과 속성까지 재해석해 미감을 담아낸 다채로운 공예 작품이 선보인다. 앞서 입구에서 보았던 오브제처럼 고가구에 광섬유를 이용해 소금의 귀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흰 무명으로 만든 소금 자루가 정갈하게 걸려 있는 벽, 백자 보시기에 마치 하늘에서 내린 듯 소금이 쌓이는 모습 등 하나의 한정된 테마를 각기 다르게 풀어내는 작가의 상상력이 재미있고 아름답다. 한편 국립민속박물관 야외 전시장 오촌댁에서는 한옥을 배경으로 우

리 전통 식문화를 보여주는 전시가 펼쳐졌다. 오촌댁은 경상북도 영덕군에 있던 전통 한옥을 기증받아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조선 후기 중상류 계층의 전통 한옥 유형을 잘 보여준다. 옛집 구석구석 우리네 조상이 어떤 밥상을 차리고 무엇을 먹었는지, 깊이 궁리해서 재연한 노력이 엿보인다.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외국 관광객이 작은 대청에 앉아, 부뚜막 입구에 서서 신기한 듯 전시물을 바라보는 것도 재미있다. 오촌댁에서는 푸드 스타일리스트 노영희의 품격 있는 상차림과 더불어 직접 맛을 볼 수 있는 식문화 체험 행사까지 펼쳐진다고 하니, 마치 잔칫집처럼 관람객의 즐거움을 더할 것은 분명하다. 오촌댁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식문화 체험은 '소금과 절기 한식 문화' 메뉴 이야기와 더불어 시연을 선보인다. 오는 7월 14일에는 장떡, 28일에는 옥수수와 고구마, 마지막으로 8월 11일에는 백김치말이 국수가 메뉴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특별한인 <호모 소금 사피엔스>로 소금의 역사와 소중함을 공부한 후, 소금으로 맛을 더한 전통 음식을 즐기는 여름 나들이도 꽤나 근사할 것이다. S

## 싱그러운 자연이 가득한 집

빌딩과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도심 속을 살아가는 우리는 자연이 늘 아쉽다. 각박한 일상에서 마음의 안식과 힐링을 위한 방법으로 자연을 모티프로 표현한 인테리어가 각광받고 있다. 동물을 닮고, 식물의 싱그러움을 담은 아이템으로 집 안의 자연 자수를 높여보자.

에디터 박효성 스타일리스트 장세희(뷰로 드 플로리아)



핑크 컬러와 짙은 색 식물 패턴이 어우러져 싱그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아트 프린트 액자는 홈어게인.



여름을 상징하는 대표 식물인 선인장을 그대로 본뜬 앙증맞은 모양의 도자기 함은 앤클레버링 by 상상마당.



식탁 위에 지지 않는 꽃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프레스 플라워 기법의 접시는 트위그뉴욕 by 한국도자기.

자연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살아 있는 초록 식물만 말하는 게 아니다. 초록 잎사귀 모양이 그려진 패브릭이나 액자, 동물과 자연 풍경을 묘사한 디자인 아이템으로 집 안에 생기를 주는 인테리어가 인기다. 특히 열대 식물의 큰 잎사귀 패턴을 활용한 '보태니컬 스타일' 인테리어는 시간과 정성을 들여 식물을 관리하지 않아도 실내에 자연미를 더할 수 있고, 이국적이고 편안한 휴양지 같은 공간으로 손쉽게 탈바꿈시킨다. 집 안 곳곳에 다양한 디자인의 식물 패턴과 자연 모티프의 디자인 아이템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거실의 빈 벽면이나 현관 복도 등 눈길이 자주 닿는 곳에 보태니컬 스타일의 액자를 걸어보자. 소파나 침대에 식물 패턴의 쿠션 한두 개만 놓아줘도 청량함을 물씬 느낄 수 있다. 여기에 강렬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트로피컬 컬러'가 가미되면 경쾌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열대림의 짙은 초록과 상큼한 레몬 컬러, 여름을 대표하는 시원한 블루 컬러 또한 추천할 만하다. 보기만 해도 지친 마음의 열기를 식히고 실내 온도까지 낮추는 자연의 생명력을 마음껏 즐겨보자. S



시원한 블루 컬러와 커다란 아자수 잎 패턴의 쿠션은 김예진 작가의 작품.



나뭇결을 강렬한 선으로 표현한 도자기 화병은 헤이 by 이노메싸.



네 잎 꽃 디자인이 이중기벽으로 적용되어 열전도가 되지 않고 보온력이 높은 찻잔은 아리아 워크룸 by 해브빈서울.



경쾌한 옐로 컬러 바탕에 선인장이 그려진 이국적인 느낌의 종이 화병은 홈어게인.



산과 구름이 떠가는 풍경을 담은 미니 화병으로 디퓨저로도 사용 가능하다. 수베니어.



청량한 푸른색 원단의 전통 누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만든 누비 꽃바구니는 보량.



고요하고 평온한 감동을 선사하는 산 모양의 도자기 오브제 'the mountain'은 감한진 작가 작품.



아자수 잎을 프린팅한 냅킨이 싱그러운 테이블 세팅을 도와준다. &Klevering by 상상마당.



정원에 모이는 작은 새들에게 영감을 받아 나무로 조각한 새가 사랑스럽고 따뜻한 감성을 전한다. 로젠달 by 이노메싸.



## 여름의 낭만을 입는다

뜨거운 태양과 푸른 파도가 넘실거리는 여름, 여행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패션도 남달라야 한다. 휴양지에서의 설레는 기분을 표현할 수 있는 경쾌한 디자인과 우아하면서 편안한 스타일은 온전한 휴식과 낭만을 선사한다.

에디터 박효성



복주머니를 재해석한 디자인의 가방. 청량감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진한 바다색과 은은한 파우더 컬러가 어우러져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0914.



넓은 챙과 섬세한 플로럴 자수 포인트가 우아한 스타일로 연출해주는 라피아 소재의 모자. 가볍고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다. 헬렌카민스키



노랑과 연두 등 밝고 상큼한 느낌의 컬러와 다양한 모양의 기하학적 구슬을 엮어 시원한 여름 액세서리로 잘 어울리는 목걸이. 아프레스키 by 로브로브서울.

“행복하게 여행하려면 가볍게 떠나야 한다.”는 생텍쥐페리의 말처럼 여행 중에는 편안하게 입는 게 기본이다. 그러나 스타일도 포기할 수 없는 법. 럭셔리 패션 브랜드들이 매년 휴가지 패션 스타일링을 제안하는 ‘크루즈 컬렉션’, ‘리조트 컬렉션’을 선보이는 이유는 특별한 패션이 여행의 즐거움을 배가시켜주기 때문이다. 선상 여행을 즐기는 상류층을 위한 옷에서 유래한 ‘크루즈 룩’은 편안함에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소재와 디자인이 더해져 완벽해진다.

오버사이즈 핏의 튜닉 원피스와 로브는 잊지 말고 챙기자. 쇼핑이나 산책할 때 입다가 수영복 위에 걸치기도 좋아 활용도가 높다. 실크 스카프도 휴가지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하는 아이템이다. 오프 숄더 톱, 헤어밴드, 벨트 등으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고, 실내에서는 강한 에어컨 바람을 막아주기도 한다. 챙이 넓은 라피아 소재 모자와 에스파드리유 스타일의 신발은 여름휴가 패션에 센스를 더하고, 비비드한 컬러의 가벼운 소재 액세서리는 발랄하고 달콤한 기분을 표현하기에 그만이다. S



신뜻한 민트 컬러 가죽 파우치는 지갑 정도의 사이즈로 휴대가 간편하고, 수납 공간이 구분되어 물건이 섞이지 않는다. 루미코리아.



아자수 프린트의 감각적인 패턴과 트렌디한 스타일의 로브. 가볍고 시원하며 젖어도 빨리 말라 수영복 위에 덧입기 좋다. 로브로브서울.



풍성한 테슬이 고급스러운 크루즈 룩으로 완성해주는 샌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다. 헬렌카민스키



시원한 여름 소재인 모시를 조각보처럼 한 뼘 한 뼘 엮어 입체적으로 표현한 브로치. 무게감이 거의 없어 날아갈 듯 가볍다. 강미나 작가 작품.



몸매의 실루엣을 잡아주는 탄력 있는 소재와 레드 컬러의 물고기 패턴이 시선을 사로잡는 원피스 수영복은 빌브레퀸



로즈골드 테와 핑크 렌즈의 선글라스는 얼굴을 화사하게 밝히고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준다. 마노모스.



여행 가방을 꾸릴 때는 비와 햇빛을 막을 수 있는 우산도 필수다. 신시임당의 <초충도>가 그려진 우아한 우산은 KCDF갤러리숍.



일록달록한 컬러의 도형으로 구성되어 모빌 같은 귀걸이는 휴양지 특유의 발랄한 스타일링을 도와준다. 영리영리 by 앙봉골레터.



푸른 바다를 닮은 천연 쪽 염색의 스카프. 햇빛을 가리거나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다. 장수주 작가 by 헤브빈서울.



〈Sulwhasoo〉독자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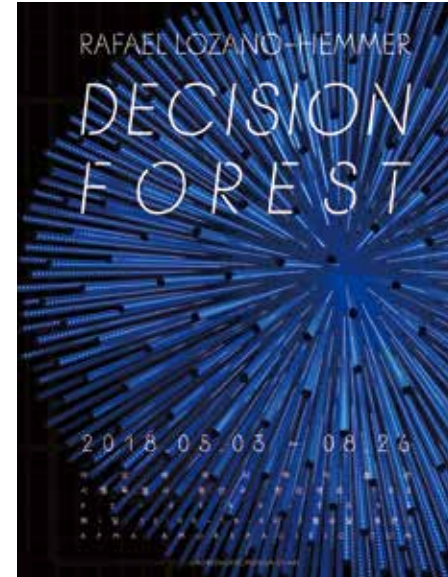
뮤지컬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관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독자엽서를 이용해 응모 가능하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9p 독자 선물 지면을 참조하세요.

시간을 건넌 운명의 사랑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36년 전 세계를 독자들을 사로잡았던 소설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가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뮤지컬로 찾아온다. 단 4일간의 만남으로 평생을 그리워할 사랑을 간직하게 된 프란체스카와 로버트의 운명적이고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에 빠져보자.

남편과 두 아이가 있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가정주부가 낯선 남자와 보낸 4일간의 애라는 사랑 이야기를 그린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가 소설에서 뮤지컬로 재탄생했다. 권태로운 일상의 구원이 되어준 사랑을, 떠나보내는 것으로 영원히 간직한 여자 프란체스카 역은 뮤지컬 배우 김선영과 차지연이 맡았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작가로 이뤄질 수 없는 사랑에 가슴이 시린 남자 로버트 역은 뮤지컬 배우 박은태와 가수 강타가 맡아 뛰어난 가창력과 수준 높은 연기를 선보인다. 토니상, 드라마데스크상, 외부 비평가상 등 세계 최정상 뮤지컬 시상식의 음악상을 석권한 감미롭고 수준 높은 음악은 물론 감성적인 연출과 아름다운 미국 시골 풍경을 재현한 무대 미학이 어우러져 2017년 한국 초연 당시 “묵직한 여운을 남기는 정통 로맨스 웰메이드 뮤지컬”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확실한 감정은 단 한 번만 오는 거요.”라는 극 중 로버트의 대사처럼 인생에 딱 한 번 찾아오는 운명 같은 공연을 만나보자.

일시 8월 11일~10월 28일 장소 샤롯데씨어터 문의 1666-8662



작품과 사람의 상호작용이 바로 예술이다  
〈Decision Forest〉

아모레퍼시픽은 미술 전하는 기업답게 지난해 말 문을 연 용산 신사옥 1층과 지하에 미술관을 갖추고, 개관 첫 기획전으로 대규모 인터랙티브 미디어 전시를 마련했다. 기술을 예술로 풀어내 관객을 만나 비로소 완성되는 소통의 장이 펼쳐진다.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의 개관 기념 전시 작가는 멕시코 태생의 캐나다 출신 로자노 헤머의 〈디시전 포레스트〉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관계’를 주요 프로젝트로 진행한 그의 작품을 통해 ‘소통’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서다. 이번 전시는 대학에서 물리, 화학을 전공한 작가의 키네틱 조각, 생체 측정 설치 작품, 카메라와 사운드, 프로젝트를 활용한 여러 과학적 작업들로 관객이 직접 만지고 움직여주어야 완성된다. ‘페어아이들리엄(Pareidolium)’의 초음파 분무기를 사용한 분수는 관객이 물속을 들여다보면 카메라가 얼굴 이미지를 추출해 증기로 그려내고, ‘펄스 룸(Pulse Room)’에서는 인간의 심장 박동을 빛과 소리로 변환, 밤하늘의 별처럼 표현해 가슴 떨리는 감동을 선사한다. 작가의 한국 첫 전시로 사람을 향해 있는 따뜻한 시선의 작품 총 29점을 만날 수 있고, 이 중 5점은 신작이라 더 의미가 깊다.

일시 8월 26일까지 장소 아모레퍼시픽미술관 문의 02-6040-2345

콘서트 〈자우림, 청춘예찬〉



데뷔 21년차 스물한 살 청춘을 맞이한 밴드 자우림이 세대를 뛰어넘는 청춘의 아름다움을 노래한다. 열 번째 정규 앨범 발매를 기념하는 이번 콘서트는 신곡과 함께 오랜 시간 사랑을 받은 자우림의 명곡, jibc (비긴 어게인 2)에서 불렀던 커버 곡들까지 다채롭게 채웠다. **일시** 7월 7~8일 **장소**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문의** 1544-1555

전시 〈Hi, ice cream – 아이스크림에 빠지다展〉



아이스크림을 주제로 오감을 깨우는 체험 전시다. 각 테마마다 아이스크림을 포함한 캔디, 쿠키, 젤리, 과일 같은 요소를 다채로운 컬러와 조형, 미디어를 접목한 디지털아트워크 등으로 꾸몄다. 밀랑밀랑하고 시원한 이 전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일시** 9월 7일까지 **장소** SFACTORY **문의** 02-521-8016

전시 〈Weather: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떤가요?〉



‘날씨’에 대한 예술가들의 색다른 해석을 만날 수 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 26명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무심코 지나쳤던 매일의 날씨에서 감수성을 깨울 수 있는 영감을 받은 170여 점의 작품들이 총 여섯 가지 이야기로 펼쳐지며 한 권의 수필집처럼 구성된다. **일시** 10월 28일까지 **장소** 다뮤지엄 **문의** 070-5097-0043

책 〈식물 산책〉



식물학자이자 식물 세밀화가인 저자가 10여 년간 만난 식물에 대한 기록이다. 세계 곳곳에 위치한 식물원과 수목원 정원과 공원에서 자라는 식물을 직접 그린 뒤 친절 한 설명을 덧붙여 아름답고 싱그럽다.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식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을 한 권의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지은이** 이소영 **출판사** 글항아리

전시 〈르누아르: 여인의 향기展〉



인상주의의 거장 오귀스트 르누아르의 작품들을 컨버전스 아트 소개한다. 꽃과 여성을 중심으로 표현한 작품들에 소리와 향기, 영상 등 다양한 연출을 더해 19세기 후반 프랑스 파리로 시간 여행을 다녀온 듯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일시** 10월 31일까지 **장소** 본다빈치뮤지엄 서울숲 **문의** 1661-0553

전시 〈내가 사랑한 미술관: 근대의 걸작〉



한국 최초의 근대 미술관인 덕수공관에서 우리나라 근대 미술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1938년 건립 당시의 설계도면과 사진을 통해 건축적 의미를 살펴보고 김기창 김한기 유영국 이용노 등 우리나라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일시** 10월 14일까지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문의** 02-2022-0600

# Sulwhasoo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설화수 제품들

### 클렌징 라인

**중중비누**  
홍삼진액의 항산화 효능으로 매끄럽고 생기 있는 피부를 선사하는 40일 속성 프리미엄 한방 비누  
100g x 2 | 45,000원대

**순행클렌징워터**  
메이코일과 노폐물을 일깨워 없애주는 촉촉하고 편안한 수분 클렌징 워터  
200ml | 38,000원대  
400ml | 63,000원대

**순행클렌징오일**  
신성한 사용감의 오일이 얼굴에 부드럽게 롤링되는 저자극 클렌징 오일  
200ml | 40,000원대  
400ml | 70,000원대

**순행클렌징폼**  
피부 노폐물을 일깨워 없애고 촉촉함은 유지해주는 저자극 클렌징 폼  
400ml | 35,000원대  
400ml | 62,000원대

### 에센셜 라인

**윤조에센스**  
자음단™이 건강한 피부 윤기를 선사하는 첫 단계 에센스  
60ml | 90,000원대  
90ml | 120,000원대

**윤조에센스미스트**  
자음단™이 미세하게 분사되어 생기는 윤빛 피부를 선사하는 에센스 미스트  
110ml | 7만원대  
50ml | 4만원대

**윤조마스크**  
자음단™을 미세한 코튼 시트에 담아 매끄러운 피부를 선사하는 집중 밸런싱 케어 마스크  
5매 | 60,000원대

**자음수**  
깊은 흡수력으로 피부를 촉촉히 적셔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쉬 타입 스킨 에센스  
125ml | 57,000원대

**자음유액**  
매끄럽게 펴 발리고 일깨워 흡수되어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소프트 로션 에센스  
125ml | 63,000원대

### 홀리스틱 케어

**눈경에센스**  
피부를 촉촉히 가꾸어 매끈하고 단정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피부 결 정리 에센스  
50ml | 125,000원대

**설리안크림**  
눈가 피부에 일깨워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주름 개선 아이크림  
25ml | 115,000원대

**탄력크림**  
자신체™가 피부를 지지하는 힘을 보어 탄탄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탄력강화크림  
75ml | 105,000원대

**에싱본앰플**  
천삼화 홍삼이 혈행과 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어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마시는 홍삼 앰플  
20g x 30 | 17만원대

### 스페셜 라인

**미안피니셔**  
앞서 바른 성분의 효능은 울리고 피부를 감싸 윤기 보호막을 형성하는 스킨케어 피니셔  
80ml | 90,000원대

**소선보크림**  
(TFP 40 / SPF 30 / PA++)  
빛과 적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안티에이징 데이크림  
50ml | 150,000원대

**에스칩크림&패치**  
안개 낀 피부 부위를 탄력 있게 케어해주는 크림&패치  
25ml(크림)+10개(패치) | 200,000원대

**탄력액크림**  
자신체™와 5가지 한방 오일로 인한 목 피부를 탄탄하고 매끄럽게 가꾸어주는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80,000원대

**영의분초앰플**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를 촉촉하고 윤력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8주 케어 안티에이징 앰플  
8ml x 4 | 200,000원대

### 자정 라인

**자정클렌징폼**  
백토 성분과 노폐물을 제거해 환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브라이팅 클렌징 폼  
150ml | 40,000원대

**자정닝팩**  
백상 성분은 담은 쉬 모놀라가 매끄럽게 빛나는 피부 버팀을 가꾸어주는 브라이팅 마스크  
80ml | 65,000원대

**자정수**  
자진 피부를 정돈해 주고 마백 기능을 끌어 올려 주는 쉬 타입 브라이팅 스킨  
125ml | 65,000원대

**자정유액**  
피부 위로 촉촉함이 부드럽게 퍼져 유분과 맑은 피부 상태로 가꾸어주는 브라이팅 스킨  
125ml | 70,000원대

**자정미백에센스**  
백상 마백 성분이 맑고 투명한 어린 피부 빛을 끌어올려주는 브라이팅 에센스  
50ml | 210,000원대

**자정미백스팟트리트먼트**  
기미·잡티 생성을 억제하고 주변 유분 환경까지 케어하는 국소 부위를 스팟 트리트먼트  
25ml | 130,000원대

**자정미백아이에센스**  
쿨링 자막 어플리케이션과 젤 텍스처가 눈가 피부를 맑게 가꾸어주는 브라이팅 아이에센스  
15ml | 75,000원대

**자정미백크림**  
브라이팅 활성 성분이 촉촉하게 펴나고 투명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브라이팅 크림  
50ml | 135,000원대

● 1호 소프트 클로우  
● 2호 소프트 피치

### 설린 라인

**자정미백마스크**  
자정 미백 시트가 조각작으로 맑은 안색과 탄력감을 선사해 주는 브라이팅 마스크  
5매 | 65,000원대

**상백크림**  
(SPF 50+ / PA+++)  
피부를 보호해 줌이 깨끗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안티폴루션 마백 선크림  
40ml | 75,000원대

**설린수**  
매화의 항산화 에너지를 담아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 버팀을 가꾸어주는 생기베이스 스킨컨디셔너  
150ml | 75,000원대

**설린에센스**  
매화의 항산화 에너지를 담아 피부의 생기를 깨우고 맑은 피부로 가꾸어주는 생기탄력 에센스  
50ml | 140,000원대

**설린크림**  
매화의 항산화 에너지를 담아 외부 유해오염과 피부 노화의 징후로부터 케어해주는 생기탄력 크림  
50ml | 150,000원대

### 자여진/자음생 라인

**자여진에센스**  
주름은 밀어내고 탄력은 끌어올려주는 인삼 겔수 타입 에센스  
35ml | 150,000원대  
50ml | 180,000원대

**자음생수**  
귀하게 얻은 중삼수™가 동일한 피부에 탄력과 영양을 공급하는 안티에이징 앰플  
125ml | 80,000원대

**자음생유액**  
귀하게 얻은 중삼수™가 매끈한 피부에 탄력과 영양을 공급하는 안티에이징 앰플  
125ml | 90,000원대

### 수술 라인

**자음생이이크림**  
백토 성분과 노폐물을 제거해 환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홍삼 안티에이징 아이크림  
20ml | 180,000원대

**자음생크림**  
인삼 결정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는 인삼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250,000원대

**자음생크림 라이트**  
인삼 결정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는 인삼 안티에이징 크림 (신선한 질감)  
60ml | 250,000원대

**자음생마스크**  
자음생크림의 성분과 더더 랩핑 시트™가 탄탄하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하는 안티에이징 크리미 시트 마스크  
5매 | 120,000원대

**자음생패시얼오일**  
귀한 인삼 중추유가 함유된 오일이 피부에 영양을 주는 케어를 선사하는 패시얼 오일  
20ml | 130,000원대

**수술미스트**  
즉각적인 청량함과 수분 공급으로 피부에 명운함을 주는 수분 진정 미스트  
100ml | 42,000원대

**수술크림**  
시원한 자차나무 수액이 피부를 편안하게 가꾸어주는 수분 크림  
50ml | 90,000원대  
75ml | 110,000원대

**수술선크림**  
(SPF 50+ / PA+++)  
수분 공급,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케어하는 수분선크림  
50ml | 55,000원대

### 바디 & 헤어

**동백윤오일**  
천연 유래 동백 오일이 끈적임 없이 자연스러운 윤기를 선사하는 헤어 오일  
100ml | 35,000원대

**에센셜밤**  
홍화의 고농축 보습 성분이 피부를 촉촉하고 윤기 나게 가꾸어주는 밤디 보습 밤  
15g | 40,000원대

**연설바디크림**  
노화로 인해 흐트러진 피부를 탄력 있게 가꾸어주는 고보습 안티에이징 바디크림  
200ml | 80,000원대

### 진설 라인

**진설수**  
적응 성분이 즉각 흡수 되어 깊이 있는 촉촉함을 선사하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스킨  
125ml | 110,000원대

**진설유액**  
적응 성분이 피부 결을 매끈하고 유연하게 가꾸어주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앰플  
125ml | 120,000원대

**진설에센스**  
적응의 생생력과 항산화 에너지가 피부 방어력을 높이는 프리미엄 토탈 안티에이징 에센스  
50ml | 330,000원대

**진설아이에센스**  
적응 성분과 글로이케어 마사지가 빛나는 눈가 피부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토탈 안티에이징 아이에센스  
20ml | 270,000원대

**진설아이크림**  
눈가 피부의 주름과 칙칙함을 케어하는 프리미엄 토탈 안티에이징 아이크림  
25ml | 270,000원대

### 다함설 라인

**진설크림**  
적응과 송이의 생생력으로 한결 깊은 젊은 피부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토탈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450,000원대

**진설클렌징폼**  
진한 거품이 개인함과 촉촉함을 동시에 선사하는 프리미엄 클렌징폼  
150ml | 60,000원대

**다함설크림**  
단상과 홍삼이 절음의 에너지로 선사하는 피부 강화 혁신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650,000원대

### 옵션 라인

**살인팩**  
옥의 기운으로 맑고 매끄러운 피부로 가꾸어주는 수면팩  
80ml | 85,000원대

**여윤팩**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다음 날 아침 피부 윤기가 되살아나게 도와주는 수면 팩  
120ml | 52,000원대

**옥윤팩**  
묵은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하여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필 오프 타입 팩  
150ml | 42,000원대

**에올마사지크림**  
크림과 오일이 조화를 이루어 편안하게 롤링되고 촉촉함과 활력감을 동시에 선사하는 팜링 마사지 크림  
120ml | 55,000원대

**리프레싱클렌징폼**  
천연 파우더 성분과 조일한 거품의 데일리 스크림 경용 클렌징  
150ml | 30,000원대

**본윤에센스**  
주름 탄력 칙칙함을 케어해주는 워터 쉬 타입의 안티에이징 에센스  
140ml | 73,000원대

### MEN

**본윤유액**  
남성 피부 장벽 강화 및 외부 자극에 의한 피부 손상을 케어해주는 고보습 안티에이징 로션  
90ml | 52,000원대

**본윤크림**  
피부 노화를 완화하는 인삼씨 오일 성분과 고보습 안티에이징 크림  
40ml | 90,000원대

**밀락싱UV프로텍터**  
자외선과 외부 자극으로부터 편안한 피부 보호막을 만드는 남성 UV 프로텍터  
50ml | 40,000원대

### 쿠션

**퍼펙팅쿠션**  
(SPF 50+ / PA+++)  
오래 지속되는 기법과 미세한 케어와 촉촉하고 윤기 있는 피부로 완벽한 메이크업을 연출하는 캐버 윤기 쿠션  
15g x 2 | 65,000원대 (리필 15g 30,000원대)

**퍼펙팅쿠션 브라이팅**  
(SPF 50+ / PA+++)  
무엇든 추출물이 화사하게 해주는 브라이팅 쿠션  
15g x 2 | 85,000원대 (리필 40,000원대)

**퍼펙팅쿠션 인텐스**  
(SPF 50+ / PA+++)  
피부에 생기 율을 선사하는 펠 베이스 겸 히라리터  
15g x 2 | 85,000원대 (리필 40,000원대)

**멀티 쿠션 하이리터**  
피부에 생기 율을 선사하는 펠 베이스 겸 히라리터  
8g | 40,000원대

**파우더 쿠션**  
피부 위에 공기처럼 섹팅되어 고급 매트한 텍스처를 선사하는 산뜻함을 유지시켜주는 파우더 쿠션  
8g | 90,000원대

● 1호 소프트 핑크 ○ 1호 소프트 화이트  
● 11호 페일 핑크 ● 13호 화이트 핑크 ● 15호 아이보리(베이지) ● 17호 화이트 베이지 ● 21호 미디엄 핑크 ● 23호 미디엄 베이지 ● 25호 딥 베이지 ● 33호 다크 베이지  
● 1호 레드인드 피치 ○ 1호 소프트 화이트  
● 11호 페일 핑크 ● 13호 화이트 핑크 ● 15호 아이보리(베이지) ● 17호 화이트 베이지 ● 21호 미디엄 핑크 ● 23호 미디엄 베이지 ● 25호 딥 베이지 ● 33호 다크 베이지  
● 1호 레드인드 피치 ○ 1호 소프트 화이트  
● 11호 페일 핑크 ● 13호 화이트 핑크 ● 15호 아이보리(베이지) ● 17호 화이트 베이지 ● 21호 미디엄 핑크 ● 23호 미디엄 베이지 ● 25호 딥 베이지 ● 33호 다크 베이지  
● 1호 레드인드 피치 ○ 1호 소프트 화이트

### 메이크업밸런서

● 1호 화이트 핑크 ● 2호 화이트 파플 ● 3호 화이트 그린  
**메이크업밸런서**  
(SPF 25 / PA++)  
유 수분, 피부 힘 · 톤 · 결을 밸런싱하는 메이크업밸런서  
35ml | 60,000원대

### CC

● 1호 핑크 베이지 ● 2호 미디엄 베이지  
**CC유액**  
(SPF 34 / PA++)  
매끈한 도자기 피부결로 표현해주는 유액 타입 CC  
35ml | 60,000원대

### 쉬어 래스팅 메이크업

● 11호 포슬렌(핑크) ● 15호 아이보리(핑크) ● 17호 아이보리(베이지) ● 21호 내추럴(핑크) ● 23호 내추럴(베이지) ● 25호 샌드(핑크) ● 25호 샌드(베이지)

**쉬어 래스팅 파운데이션**  
쉬어 히드라 포몰러로 수분을 선사하는 파운데이션  
30ml | 58,000원대

**쉬어 래스팅 젤 쿠션**  
(SPF 35 / PA++)  
멜팅 젤 텍스처와 마이크로 광으로 화사함을 선사하는 쿠션  
12g | 58,000원대

### 자정 메이크업

● 21호 은은한 색 ● 23호 차분한 색 ● 21호 은은한 색 ● 23호 차분한 색

**자정 에센스비비**  
(SPF 50+ / PA+++)  
하루 종일 맑고 화사한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화이트닝 에센스 BB  
30ml | 60,000원대

**자정 미백UV팩트**  
(SPF 50+ / PA+++)  
자외선과 유분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화이트닝 팩트  
14g | 60,000원대 (리필 45,000원대)

**에서 파운데이션**  
[리퀴드] (SPF 15 / PA+) 3중 보호막으로 촉촉하게 커버하는 파운데이션  
30ml | 55,000원대

**에서 스킨케어**  
(SPF 25 / PA++)  
크리미한 텍스처의 케이크 타입 파운데이션  
14g |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

**에서 트윈케이크**  
(SPF 30 / PA+++)  
담담함 없이 커버해주는 트윈케이크  
11g | 50,000원대 (리필 42,000원대)

### 에서 파우더 섬세한 파우더가 화사한 톤으로 가꾸어주는 파우더 20g | 55,000원대 (리필 40,000원대) 진설 메이크업 ● 21호 은은한 색 ● 23호 차분한 색 ● 21호 은은한 색 ● 23호 차분한 색 **진설 윤메이크업크림** 3가지 빛깔의 보석 파우더가 피부에 윤기를 표현하는 메이크업 크림 30ml | 90,000원대 **진설 윤파운데이션** (SPF 30 / PA+++) 피부 표면에 촉촉하게 밀착되는 프리미엄 파운데이션 30ml | 90,000원대 **진설 윤팩트** 영을 파우더가 화사함과 윤기를 표현해주는 프리미엄 팩트 13.5g | 110,000원대 (리필 80,000원대) 컨실러 스틱 ● 1호 미디엄 핑크 ● 2호 미디엄 베이지 **에센셜 컨실러 스틱** 부드럽게 파우더가 얼굴에 넓게 퍼져 있는 결까지 한층 케어해주는 컨실러 스틱 5g | 40,000원대 레이디스 블러셔 ● 1호 핑크 하모니 ● 2호 코랄 하모니 **레이디스 블러셔** 자연스럽게 화사한 핑크와 윤기 있는 피부 보습을 더해주는 멀티 컬러 블러셔 10g | 60,000원대 립 ● 1호 에브리퀸 세럼 ● 2호 블라썸 세럼 ● 3호 플라워 핑크 ● 4호 로즈 레드 ● 5호 블라썸 코랄 ● 6호 스위트 핑크 ● 7호 딥 베리 ● 8호 소프트 로즈 ● 9호 글로우 오렌지 ● 10호 비비드 핑크 ● 11호 레드인드 레드 ● 12호 소프트 오렌지 **에센셜 립세럼 스틱** 고보습 보습막으로 생기 있고 탄력 넘치는 입술로 가꾸어주는 데일리 립 케어 3g | 40,000원대 아이브로우 ● 31호 화이트 브라운 ● 32호 에쉬 브라운 ● 34호 딥 브라운 ● 75호 다크 그레이 **아이브로우 퍼펙터** 내추럴 컬러의 부드러운 발색으로 자연스러운 눈썹 연출할 수 있는 아이브로우 오토펙셀 0.3g | 20,000원대

##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 순행클렌징워터(5명)

미셀라 워터가 메이크업과 피부 노폐물을 말끔히 없애고 피부를 촉촉하게 관리해주는 수분 클렌징워터입니다.



### 뮤지컬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관람권(3명)

가슴 먹먹한 사랑만큼이나 음악적 완성도가 높은 뮤지컬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의 관람권을 3명(인 2매)께 드립니다. (티켓 수령은 추후 당첨자 개별 공지)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매거진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서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독자엽서에 내용을 적어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독자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Sulwhasoo> 내의 독자엽서로 우편을 이용해 응모
- 응모 마감 2018년 8월 15일까지
- 중정 선물 설화수 순행클렌징워터, 뮤지컬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관람권
- 당첨자 발표 9/10월호 독자선물 당첨자란 참조

### 2018년 5/6월호 독자선물 당첨자 명단

#### 설화수 윤조엔스미스트(4명)

- 김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 임선미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 정금희 서울시 강남구 한릉로
- 정영선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관람권(3명)

- 김현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인로
- 송병숙 대전시 동구 계족로
- 조연수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2018년 5/6월호 당첨자 선물은 7월 31일까지 보내드립니다.

설화수

# Sulwhasoo

## 한 겹 커버로 화사함까지 살리다 마침내, 꿈꾸던 피부로 설화수 쉬어 래스팅 젤 쿠션

모든 것을 가리기만 하는 메이크업은 당신이 지닌 매력까지 덮어버리죠. 잡티는 커버하면서도 본래의 피부빛은 자연스럽게 살리는 쉬어 래스팅 젤 쿠션. 산자나무 열매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담긴 새로운 멜팅 젤 텍스처가 얇고 가볍게 밀착돼 보송한 마무리감과 은은한 광채로 하루종일 화사한, 꿈의 피부를 만나세요.



<설화수 전국 매장>

FLAGSHIP STORE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02-541-9270

SPA

설화수 스파 롯데호텔서울 3~4층 02-318-6121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지하 1층 02-541-9272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4층 02-541-9273

백화점

서울특별시

-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148
- 롯데백화점 잠실점 02-2143-7192
- 롯데백화점 강남점 02-531-2165
-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02-2164-5029
-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02-3707-1129
- 롯데백화점 관악점 02-3289-8140
- 롯데백화점 노원점 02-950-2152
- 롯데백화점 미아점 02-944-2046
- 롯데백화점 스타시티점 02-2219-3116
- 롯데백화점 월드컵점 02-3213-2056
-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02-6116-3150
- 현대백화점 본점 02-3438-6072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614
- 현대백화점 신촌점 02-3145-2114
- 현대백화점 미아점 02-2117-1147
- 현대백화점 천호점 02-2225-7184
- 현대백화점 목동점 02-2163-1171
-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5081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3479-1265
-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02-2639-4122
-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 02-6905-3360
- 아이파크백화점 02-2012-4179
-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02-2211-0148
- AK플라자백화점 구로본점 02-852-6136

인천광역시, 경기도

- 롯데백화점 인천점 032-450-2140
- 롯데백화점 부평점 032-452-2175
- 롯데백화점 안산점 031-412-7748
- 롯데백화점 평촌점 031-8086-9159
- 롯데백화점 수원점 031-8066-0157
- 롯데백화점 분당점 031-738-2172
- 롯데백화점 일산점 031-909-3224
- 롯데백화점 안양점 031-463-2147
- 롯데백화점 구리점 031-550-7912
- 롯데백화점 중동점 032-320-7135
- 현대백화점 중동점 032-623-2136
- 현대백화점 판교점 031-5170-2110
-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031-822-3140
-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032-430-1479
-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031-695-1282
-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031-8082-0343
- 신세계백화점 하남점 031-8072-1801
-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031-237-9890
- AK플라자백화점 분당점 031-709-9694
- AK플라자백화점 수원점 031-240-1152
- AK플라자백화점 평택점 031-646-6130

부산광역시

- 롯데백화점 부산점 051-805-0484
- 롯데백화점 동래점 051-552-4118
-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30-3183
- 롯데백화점 광복점 051-678-3166
- 현대백화점 부산점 051-667-0140
-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45-2296

울산광역시

- 롯데백화점 울산점 052-258-5784
- 현대백화점 울산점 052-228-0116
- 현대백화점 울산동구점 052-250-4173

대구광역시

- (주)대구백화점 본점 053-428-2961
- (주)대구백화점 프리아점 053-426-6036
- 롯데백화점 대구점 053-660-3054
- 롯데백화점 상인점 053-258-3106
- 현대백화점 대구점 053-245-2125
- 동아백화점 수성점 053-781-9295
-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053-661-1861

광주광역시, 전라도

- 롯데백화점 광주점 062-221-1139
-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062-368-6764
- 롯데백화점 전주점 063-289-3176
- 뉴코아아울렛 순천점 061-720-5151

경상도

- 롯데백화점 창원점 055-279-3116
- 롯데백화점 마산점 055-240-5193
- 롯데백화점 포항점 054-230-1190
-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055-240-1263
-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055-272-1108
- 갤러리아백화점 진주점 055-791-1165
- 동아백화점 구미점 054-455-6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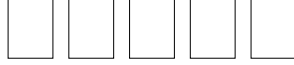
통합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15.07.01~2024.0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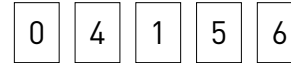
서울 마포우체국  
승인 제40861호

받는 사람

서울시 마포우체국 사서함 117호

<Sulwhasoo> 담당자 앞

전화: 080-023-5454(수신자 요금 부담)



Sulwhasoo



아모레퍼시픽 설화수의 (Sulwhasoo)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고객님께는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 펼치다

|                |       |   |   |   |   |   |   |   |        |
|----------------|-------|---|---|---|---|---|---|---|--------|
| 설화지혜(8p)       | 매우 만족 | 7 | 6 | 5 | 4 | 3 | 2 | 1 | 매우 불만족 |
| 피부 섬기기(12p)    | 매우 만족 | 7 | 6 | 5 | 4 | 3 | 2 | 1 | 매우 불만족 |
| 新 장인을 만나다(16p) | 매우 만족 | 7 | 6 | 5 | 4 | 3 | 2 | 1 | 매우 불만족 |
| 공간미감(22p)      | 매우 만족 | 7 | 6 | 5 | 4 | 3 | 2 | 1 | 매우 불만족 |
| 진너다(28p)       | 매우 만족 | 7 | 6 | 5 | 4 | 3 | 2 | 1 | 매우 불만족 |

2. 누리다

|               |       |   |   |   |   |   |   |   |        |
|---------------|-------|---|---|---|---|---|---|---|--------|
| 설화인(36p)      | 매우 만족 | 7 | 6 | 5 | 4 | 3 | 2 | 1 | 매우 불만족 |
| 어우리지다(44p)    | 매우 만족 | 7 | 6 | 5 | 4 | 3 | 2 | 1 | 매우 불만족 |
| 설화풍경(50p)     | 매우 만족 | 7 | 6 | 5 | 4 | 3 | 2 | 1 | 매우 불만족 |
| 설화보감(54p)     | 매우 만족 | 7 | 6 | 5 | 4 | 3 | 2 | 1 | 매우 불만족 |
| 아름다운 기행(60p)  | 매우 만족 | 7 | 6 | 5 | 4 | 3 | 2 | 1 | 매우 불만족 |
| 설화수를 말하다(66p) | 매우 만족 | 7 | 6 | 5 | 4 | 3 | 2 | 1 | 매우 불만족 |
| 설화공간(72p)     | 매우 만족 | 7 | 6 | 5 | 4 | 3 | 2 | 1 | 매우 불만족 |

3. 익히다

|             |       |   |   |   |   |   |   |   |        |
|-------------|-------|---|---|---|---|---|---|---|--------|
| 배움의 기쁨(78p) | 매우 만족 | 7 | 6 | 5 | 4 | 3 | 2 | 1 | 매우 불만족 |
| 한국의 멋(82p)  | 매우 만족 | 7 | 6 | 5 | 4 | 3 | 2 | 1 | 매우 불만족 |
| 설화애장(84p)   | 매우 만족 | 7 | 6 | 5 | 4 | 3 | 2 | 1 | 매우 불만족 |
| 읽다(86p)     | 매우 만족 | 7 | 6 | 5 | 4 | 3 | 2 | 1 | 매우 불만족 |
| 집 안 단장(90p) | 매우 만족 | 7 | 6 | 5 | 4 | 3 | 2 | 1 | 매우 불만족 |
| 몸 단장(92p)   | 매우 만족 | 7 | 6 | 5 | 4 | 3 | 2 | 1 | 매우 불만족 |

+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다음 호 (Sulwhasoo)에 더 적극적으로 실었으면 하는 기사는? (해당 칸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상품 정보       제품 미용법       요리, 인테리어 및 패션   
 공연, 전시 및 문화 정보       풍경 및 여행지       인물 인터뷰   
 기타 \_\_\_\_\_

2. 다음 중 받고 싶은 선물 1개를 선택해주세요. (98p 참조)

설화수 순행클렌징워터       뮤지컬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관람권   
 이름 \_\_\_\_\_      성별    남     여       나이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선물에 당첨되면 해당란에 적어주시 주소 및 전화번호로 개별 연락 드립니다)

+ (Sulwhasoo)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부분과 불만스러웠던 부분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7/8월호 (Sulwhasoo)의 엽서 응모 마감은 8월 15일입니다.

\* (주)아모레퍼시픽은 애독자엽서 추천 이벤트 참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소, 성별, 나이, 전화번호    • 수집 및 이용 목적: 애독자엽서 선물 발송    • 보유 및 이용 기간: 애독자엽서 응모 마감으로부터 3개월  
 고객님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이벤트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주)아모레퍼시픽은 이벤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에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취급위탁을 받는 자: 누리원기획, 가이미디어    • 취급위탁을 받는 업무: 엽서 이벤트 참여자 확인 및 당첨자 게시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강원도, 충청도**
- 엠펙화점 춘천점 033-257-4129
  - AK플라자백화점 원주점 033-811-5502
  -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 041-552-3358
  -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041-640-5017
  - 롯데백화점 청주점 043-219-9219
  - 현대백화점 충청점 043-909-4124
  - 롯데백화점 대전점 042-528-3320
  -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042-488-5650
  - 세이백화점 042-256-0198

**면세점**

- 롯데 부산 면세점 051-810-3879
- 롯데 소공 면세점 02-759-6662
- 롯데 인천 면세점 032-743-2422
- 롯데 인천 탑승동 032-743-7947
- 롯데 제주 면세점 064-793-3138
- 롯데 코엑스 면세점 02-3484-9655
- 롯데 김포 면세점 02-2669-6730
- 롯데 김해공항 면세점 051-979-1932
- 신라 면세점 02-2230-3597
- 신라 인천 면세점 032-743-4488
-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 02-490-3351
- 신라 제주 면세점 064-710-7324
- 신세계 명동 면세점 02-6370-4109
- 신세계 면세점 051-749-1448
- 한화 제주공항 면세점 064-740-0144
- 한화 면세점 02-2136-2779
- 동화 면세점 02-399-3123
- 삼익 면세점 032-743-0543
- 에스엠 인천 면세점 032-743-1570
- 에스엠 면세점 02-2120-6210
- 시티플러스 면세점 032-743-5718
- 제주관광공사 시내 면세점 064-740-6904
- 두산타워 면세점 02-3399-9236

